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고 선 강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편의 은퇴 후 가사 참여도와
부부간 공유 활동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2013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수진

남편의 은퇴 후 가사 참여도와
부부간 공유 활동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고선강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수진

인 준 서

김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김 주희 

심사위원 조 훈주 

심사위원 고 선강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가사 참여도와 부부간 공유 활동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관계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주요한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13년 3월 4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 및 전북 지역에 거주하며,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은퇴한 남성 또는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 367명이다. 은퇴 후 생애 주된 일자리와는 다른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사 참여도와 부부간 공유 활동, 통제 변수와 종속 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우울감, 독립 변수들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관한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3.1점으로 중간값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 모두 은퇴 이후 정서적 친밀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의 한 측면인 정서적 친밀도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값은 3.2점이었다. 의사 소통 효율성의 경우 남성의 평균값은 2.9점, 여성의 평균값은 3.0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은퇴 이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남녀 모두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의 점수는 총 15점 만점에 남성의 우울감 평균 점수는 5.0점, 여성의 우울감 평균 점수는 4.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남녀별 평균 점수는 각각 50.2점, 58.8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점수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사 노동 부담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주생활 영역을 제외한 4가지 모든 영역에서 부부가 비슷하게 하거나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부간 공유 활동의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중간값인 3점에 가까워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 변수와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간의 관계, 독립 변수와 우울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5가지 모든 영역에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여성은 주생활영역,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 돌봄영역에서 관련성을 보였다. 독립 변수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는 가사 노동 분담과 부부간 공유 활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는 가사 노동 수행 능력, 가사 노동 분담, 부부간 공유 활동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에 따른 우울감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우울감에는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부부간 공유 활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우울감에는 가사 노동 분담과 부부간 공유 활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독립 변수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은 부부간 공유 활동, 성역할 태도, 주관적 건강 상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부부간 공유 활동, 가사 노동 분담, 성역할 태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은 부부간 공유 활동, 주관적 건강 상태, 은퇴 전 직업, 연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가구 소득, 부부간 공유 활동, 남편의 은퇴 전 직업, 주관적 건강 상태, 가사 노동 분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은 의생활영역과 돌봄영역에서, 여성은 의생활영역과 주생활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영역별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 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주생활영역과 돌봄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부간 공유 활동은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 분담은 남성보다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은 남성의 우울감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8
1. 이론적 배경	8
1) 은퇴의 개념과 정의	8
2) 은퇴 후 부부 관계와 우울감	9
3) 관련 이론	14
(1) 은퇴 관련 이론	14
(2) 가사 노동 참여 관련 이론	16
2. 선행 연구 고찰	19
1) 독립 변수	19
(1)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19
(2) 부부간 공유 활동	26
2) 통제 변수	28
(1) 연령	28
(2) 교육 수준	30
(3) 주관적 건강 상태	30
(4) 가구 소득	31
(5) 자녀 수	32
(6) 은퇴 전 직업 및 은퇴 기간	32
(7) 성역할 태도	33
III. 연구 방법	34
1. 연구 문제	34
2. 자료 및 측정 도구의 구성	36
1) 자료 및 표본	36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도구	41
(1)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41
(2) 우울감	42
(3) 가사 참여도	43
(4) 부부간 공유 활동	45
(5) 통제 변수	46
3) 통계 분석 방법	49
V. 연구 결과 및 분석	50
1. 남녀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우울감, 독립 변수에 관한 경향성	50
2.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	56
1)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56
2)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감	60
3.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우울감, 독립 변수간의 상관 관계	63
1)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간의 상관 관계	63
2) 독립 변수와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간의 상관 관계	65
3) 독립 변수와 우울감 간의 상관 관계	66
4.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영향력	67
1)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	67
2)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	73
3) 가사 참여도가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	79
(1) 영역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	79
(2) 영역별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	81
V. 결론 및 제언	82
1. 요약 및 결론	82
2.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9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7
<표 2> 남성 및 여성 조사 대상자 남편의 은퇴 상황	39
<표 3>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42
<표 4> 우울감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43
<표 5>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44
<표 6> 가사 노동 분담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45
<표 7> 부부간 공유 활동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46
<표 8> 성역할 태도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47
<표 9>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48
<표 10>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및 우울감에 대한 성차	50
<표 11> 가사 노동 수행 능력에 대한 성차	52
<표 12> 가사 노동 분담 평균	53
<표 13> 부부간 공유 활동 평균	55
<표 14>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의 차이	59
<표 15>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62
<표 16>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간의 상관 관계	64
<표 17> 독립 변수와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간의 상관 관계	65
<표 18> 독립 변수와 우울감 간의 상관 관계	67
<표 19> 남성 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독립 변수들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69
<표 20> 여성 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독립 변수들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72
<표 21> 남성 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독립 변수들이 우울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77
<표 22> 여성 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독립 변수들이 우울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78
<표 23> 영역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80
<표 24> 영역별 가사 노동 분담이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81
<부록 1>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남성)	
<부록 2>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여성)	
<부록 3> 우울감과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남성)	
<부록 4> 우울감과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여성)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35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이다. 통계청(2012)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42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한다. 통계청(2011)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노인 인구는 2030년에는 1,269만명(24.3%), 2060년에는 1,762만명(40.1%) 수준으로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1).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은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은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통계청, 2012)하며, 출산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던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 집단을 지칭하는 베이비붐 세대¹⁾의 대거 은퇴가 시작되면서 향후에 미칠 전반적인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 현상, 은퇴로 인한 노후 생활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단순히 오랜 삶을 영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적인 측면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퇴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개인에게는 자유를 얻는 일인 동시에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는 가족의 생계 부양자로 살아온 한국 사회의 남성들에게 가족 내에서 지위와 역할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은퇴는 마땅히 환영받아야 하는

1) 베이비붐(Baby Boom) 현상은 전쟁 직후 국가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일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합계출산율(TFR)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유지된 거대한 인구 집단을 뜻한다(김용하·임성은, 2011).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활보장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상 은퇴는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은 점차 가족 관계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은퇴 후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장기 불황과 조기 퇴직율의 증가로 인해 은퇴자가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은퇴 후 부부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을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결국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은퇴 후 길어진 노후 생활에 있어서 과거보다 부부 관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삶의 질적인 측면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개인이 지각하는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은퇴 후 부부 관계는 부부가 이전까지 수행해왔던 여러 역할에 있어서 재조정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은퇴 후 남성의 가사 참여는 은퇴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즉, 남성은 이전까지 수행해왔던 직업적 역할에서 물러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은퇴 전보다 가사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은퇴 후 직업 역할 상실로 인한 시간의 증가는 부부의 가사 노동이나 다양한 여가 활동의 공유를 증가시켜 배우자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Vinick and Ekerdt, 1991). 그러나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부부간 접촉이 증가하고 직업에 전념하던 남편들이 가정 생활에 깊이 관여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김태현, 1998), 아내의 남편에 가사 참여의 기대 정도와 현실이 불일치할 때 여성은 더욱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은퇴남편증후군(RHS, Retired Husband Syndrome)'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1991년 일본에서 노부오 구로가와(Nobuo Kurokawa)에 의해 처음 등장한 이 신조

어²⁾는 남편이 은퇴한 후 아내에게서 나타나는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동반하는 심리적인 증상을 의미한다. 즉, 여성은 남편의 은퇴 후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증가로 인해 변화된 생활패턴 속에서 여성에게 가중되는 가사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 신체적·심리적인 증상으로 유발되는 것이다. 이는 은퇴 후에도 부부간에 가사 노동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의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미국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2013)가 공동 실시한 ‘2차년도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3,27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0년 46%에서 2012년 52%로 증가세를 보였고, 이혼을 고려한 비율은 2010년 38%에서 2012년 36%로 감소하여 지난 2년간 베이비부머의 부부 관계의 질은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한 베이비부머의 47.6%는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6.4%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19.4%는 지난 2년 간 불면증이나 식욕 감소와 같은 우울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증상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들 중 우울을 경험한 비율은 16.6%, 남성은 8.1%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약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2013)의 ‘인구동향조사(혼인·이혼통계)’에 따

2) 김미혜 외(2007), 권은비(2010)의 연구에서는 ‘은퇴남편증후군’이라는 용어가 1991년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고 언급하였으나, 본 연구의 저자는 1984년 Charles Clifford Johnson 박사가 ‘The Retired Husband Syndrome’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은퇴한 남편을 둔 50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여성 환자들에 관한 글을 *Western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의학학회지에 게재한 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 1991년에 처음 등장하였다고 밝힌 것은 아마도 일본에서 ‘은퇴남편증후군’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단카이세대’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사회적인 맥락이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르면, 2012년 총 이혼 건수 중 20년 이상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26.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2000년 14.2% 대비 12.2%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대비 남성은 50대 후반이 8%, 여성은 40대 이상 연령층의 이혼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13). 20년 이상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남편의 은퇴 후 부부 관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 실제 부부의 가사 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부부의 가사 노동은 은퇴 전과 비교하면 은퇴 후 남성의 가사 참여가 일정 부분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정(2006)의 연구 결과에서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가사 노동 분담 실태를 살펴본 결과, '시장보기'와 '집안 청소'의 영역에서 은퇴 후 남편의 참여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였으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아내의 주도에 의해 가사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 후에도 아내의 가사 노동 부담이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살아온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가사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거나, 여성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로 간주한다면, 여성에게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은퇴 전보다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부부 관계나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의 가사 노동이 여성이 인식하는 부부 관계나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와는 달리, 여성의 권력으로서의 가사 노동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Crawford, 1971; Brubaker, 1985; Brubaker and Ade-Rider, 1986)도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가사 노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로 간주되는 것인지, 가정 내 권력의 일환으로써 작용하는지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가사 노동은 주로 여성의 측면에서 연구되어져 왔으며, 전통적

으로 여성의 역할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양성 평등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점차 남성의 가사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부부 관계에서 역할의 재조정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은퇴 후 가사 노동 분담을 살펴보는 것은 변화된 부부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신화용·조병은, 1999). 따라서 남성도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은퇴 후에는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의 참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에서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이미 상당한 부분이 진행되어져 왔으나(Burke and Weir, 1976; Lee and Shehan, 1989; Kluwer et al., 1996; Stevens et al., 2001), 현재까지 국내에서 은퇴 후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연구를 제외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은퇴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노년기의 부부간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김태현과 전길양(1997), 김영혜(2004)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경제 불황으로 인한 조기 퇴직을 감안한다면 은퇴는 노년기뿐만 아니라 중년기에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이들 연구는 은퇴 후 연구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은퇴 후 가사 노동 분담이 남녀의 부부 관계나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은퇴 후 부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됨에 따라 다양한 활동의 공유가 증가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은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Orthner, 1975), 개인적 특성과 같은 우울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진이, 2010). 그 동안 부부간 공유 활동은 주로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 가족 기능이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이기영외, 1995; 이선미·김경신, 2002; 이정호, 2007; 최진이, 2010). 그러나 은

퇴 후 부부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소극적 여가 활동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 대화 활동의 경우에는 최근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부부간에 직접 대면하는 방법 이외에 이메일, 휴대전화,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 활동의 측정은 실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기존에 적극적·소극적 여가 활동으로 분류되어진 공유 활동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 소통의 측정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구 고령화 현상과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은퇴 후 부부 관계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가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은퇴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의 은퇴 후 은퇴한 당사자에게 은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김효정, 2007; 권은비, 2010), 남편의 은퇴가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양영순, 2009; 정순돌 외,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은퇴한 당사자나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 각자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일 뿐더러 은퇴 후 가사 노동 분담이나 부부간 공유 활동과 같은 부부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부부간 가사 노동 분담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권혜연, 1996; 유희숙·두경자, 1999; 이순미, 2008; 한연순, 2011)과, 남성의 가사 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승미, 1994; 신소영, 1996; 송혜림, 2000)은 비교적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부부간 가사 노동 분담이나 남성의 가사 참여에 관한 실태 파악에 머무르는 한계점이 있다.

남편의 은퇴 후 가사 노동 분담과 부부간 공유 활동이 부부 관계와 같은 가정 생활이나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

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체로 기존의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를 대상으로 가사 노동 분담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홍운정, 1996; 문숙재 외, 1997; 유계숙, 2010), 주부의 가사 노동 수행이 가정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유애리, 1998), 노인의 가사 노동 분담이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김영혜, 2004), 가사 노동이 성인 남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임인숙 외, 2012),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나 결혼 만족도,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기영 외, 1995; 이선미·김경신, 2002) 등이 있으며, 은퇴 후 부부간 가사 노동 분담의 변화와 부부 관계의 질적인 측면의 변화를 본 연구(장은정, 2006)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사 노동 분담과 부부간 공유 활동이 결혼 만족도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편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전 연령대를 포함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은퇴 후 가사 노동 분담과 부부간 공유 활동이 결혼 만족도와 같은 부부 관계나 우울감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가사 참여도와 부부간 공유 활동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고찰

1. 이론적 배경

1) 은퇴의 개념과 정의

은퇴는 인간의 생애 주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환기적 사건들 중의 하나로, 은퇴에 대한 정의는 고용의 결여, 완전 고용에서 부분 고용으로의 변화, 퇴직 연금의 수혜, 은퇴 사실에 대한 자기 수용 등 개념적 정의가 다양하다(장은정, 2006). Atchley(1982)는 은퇴란 사회적 제도로써 개인에게는 직업에서 물러나 건강 문제에 대처하고 여가 활동이나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Atchley, 1982).

은퇴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보수를 받는 고용 상태에 없었던 상태였거나 연간 주 35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Atchley, 2000), 정부나 노조 또는 고용주로부터 이전 직업에 대한 보상으로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퇴직 연금에 의존해 있는 상태(Atchley, 1982) 등의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연금 체계가 아직 미비하고, 공적 연금을 수급한 이후에도 소일거리 등의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윤현숙·이미진, 2006).

국내의 은퇴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은퇴는 가장 오래 머물던 일자리를 완전하게 그만둔 상태를 의미하며(박경숙, 2003a),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더 이상의 다른 할 일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김인숙, 2006), 경제 활동을 완전히 그만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7)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르면, 은퇴란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는 상태까지 포함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은퇴 이후 사회적 보장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은퇴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퇴(complete exit)가 아니라, 노동의 기회가 이동되는 다중적(multiple)·다단계적(multi-sequential)인 우리나라의 노동이동(work transition)의 특성(박경숙, 2003b)을 반영한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개념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은퇴를 조직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은퇴란 “생애 주된 일을 공식적으로 그만 두고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직장 생활에 종사하였던 경우 정년 퇴직, 명예 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였던 경우 했던 일을 그만 둔 경우를 포함, 은퇴 후 공공 근로, 경비,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은퇴 후 부부 관계와 우울감

국내의 연구에서 은퇴는 대체로 결혼 만족도나 은퇴 후 적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경과 조병은(1991)은 은퇴한 노인 총 261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의 감소, 사회적 지위의 하락, 수입 감소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화용과 조병은(2001)은 은퇴한 남편을 둔 17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은퇴 후의 적응을 분석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은퇴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은퇴 후 스트레스가 은퇴한 남편을 둔 부부의 적응에 가장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를 위기상황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은퇴로 인한 직업 역할 상실과 자녀 성장에 따른 적극적인 부모 역할 감소로 인해 은퇴 후 부부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정신적인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관계일 수 있다(신화용·조병은, 1999).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기혼 남녀에게 ‘노후를 누구와 지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배우자와 단둘이’라는 응답이 72.7%(남성 79.0%, 여성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배우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 24.5%, ‘자녀’ 8.5% 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 3,027명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가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배우자’라는 응답이 무려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녀’ 10.4%, ‘친구’ 7.2%, ‘형제·자매’ 3.7% 순으로 나타나, 앞으로 길어진 노후 생활에 있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에는 부부 역할에서 재조정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어 온 가사 노동과 정서적 지지 역할, 남편의 역할로 간주되어 온 중요한 의사 결정의 역할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이다. 따라서 은퇴 후 정서적 지지, 가사 노동 분담, 의사 결정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변화된 부부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신화용·조병은, 1999).

또한 은퇴 후에는 부부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은퇴 후 직업 역할 상실과 부모 역할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시간에 가사 노동이나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배우자와의 관계가 향상될 수 있으며(Vinick and Ekerdt, 1991), 동반자적 특성을 지니게 되어 역할 상실의 시기에 서로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Atchley, 1992; Dorfman, 1992).

반면, 부정적인 변화로는 부부가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간 활용이나 가사일 등에 대해 의견 대립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남편의 은퇴는 아내에게 있어서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방해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Keating and Cole, 1980; Dorfman, 1992; 장은정, 2006, 재인용). 이는 아내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어 결혼에 불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Patterson et al., 1974).

은퇴 후 부부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화용·조병은, 1999; 장은정, 2006; Stenves et al., 2001).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은퇴한 남편을 둔 부부 178쌍의 은퇴 후 결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부부 모두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 후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은퇴한 남편을 둔 부부 총 103쌍을 대상으로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질적 측면을 분석한 장은정(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정서적 변화 인식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편과 아내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편은 아내에 비해 은퇴 후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부부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리적 의존도도 높게 나타났다. 즉 은퇴 후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르게 지각하며,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만족감이 높다.

한편, 은퇴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Atchley(1982)는 은퇴 직후 단계를 직장생활의 제약과 의무에서 벗어나 한가로움을 즐기는 밀월단계라고 하였다. 즉, 은퇴는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 인간의 생애주기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개의 전환적 사건 중의 하나일 수 있다(강지숙, 2008).

이와 반대로 은퇴로 인한 직업 역할의 상실은 개인에게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Bromley(1990)에 의하면 은퇴로 인한 경제력 감소는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키며 직업과 관련된 사회 활동의 감소는 우울이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현대 사회에서 일은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정체감을 심어주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의 의미를 갖는데(김신덕, 1985), 은퇴 후 직업 역할의 상실은 수입 감소, 사회적 관계망 감소, 소속감 부재, 정체감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들은 가족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변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가족에게도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김명자 외, 2005). 더욱이 우리나라 남성들은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인해 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 가정 생활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은퇴로 인한 직업 역할의 상실감으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신경이 예민해져 걱정, 불안, 초조, 긴장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신경 쇠약, 우울감, 의욕 상실 등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중 노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신 장애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울이다(김효정, 2007). 은퇴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년기의 우울은 인지 변화와 함께 신체적인 증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군에 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황수섭, 1999).

국내에서 은퇴와 우울감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안녕감(윤현숙·이미진, 2006), 정신 건강의 측면(송지은·Marks, 2007; 안지선, 2012),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의 측면(김영혜, 2004)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은퇴와 우울감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효정(2007)의 연구를 제외하면 소수이다. 김효정(2007)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한 남성 노인 22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우울감을 조사한 결과, 노인의 우울 정도는 평균 6.21점으로 우울

기준 절단점인 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 중 약 60%가 우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Butterworth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1997년 호주 전국 규모의 종단 자료인 ‘The Australian National Survey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에서 은퇴기에 접어들었거나 은퇴한 45세에서 74세 사이의 남성 1,928명과 여성 2,261명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은퇴한 사람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우울감과 같은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정신 장애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은퇴는 일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들의 우울감과 같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신 건강의 문제는 은퇴 후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하다.

종합해보면, 은퇴 후에는 직업 역할 상실과 부모 역할 감소로 인해 부부 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각자 다르게 부부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즉, 가사 노동이나 다양한 공유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더욱 친밀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간섭으로 느껴져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은퇴는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중·노년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개인의 정신 건강은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 후 부부 관계와 우울감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각자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울감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관련 이론

본 연구는 크게 은퇴 관련 이론과 가사 노동 참여 관련 이론으로 나누어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은퇴 후 생활을 설명하는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으로 은퇴 후 변화 정도와 은퇴 후 생활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활동이론(Activity Theory)으로 은퇴 후 부부간 공유 활동이 부부 관계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 자원 가설(Relative Resources Perspective)의 관점으로 남편의 은퇴 후 시간 자원이나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기술에 따른 가사 참여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1) 은퇴 관련 이론

은퇴 후 생활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과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이 있다. Cumming과 Henry(1961)에 의해 주창된 분리이론에 따르면, 은퇴는 생물학적인 쇠퇴로 인한 결과이며 이러한 사회로부터의 분리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정상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다(송진영, 2011).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분리는 신체적 노화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대와 더 이상 일치되기 어려울 때 개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직업적 역할에서 물러나 사회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높은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분리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노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사회의 기능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이 퇴화된 노인을 훈련하는 것보다 숙련된 젊은이들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은퇴는 사회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리이론은 은퇴라는 사회적 제도를 인간의 생애주기에 있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통해 은퇴로 인한 변화나 또는 은퇴 후의 적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은 은퇴를 생애주기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남편의 은퇴 후 새로운 부부 역할을 재정립하여 부부관계의 질적인 측면과 우울감이 은퇴 전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리이론에서는 은퇴를 생애주기의 한 과정으로 보고 은퇴가 이루어지는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로 인해 개인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활동이론에 따르면, 은퇴 후 노년기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Havighurst 외(1968)에 의해 제시된 활동이론은 개인을 심리사회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로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는 개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만족감과 같은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가 이루어지는 노년기의 남성은 소득 감소와 직업 역할 상실로 인하여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의 참여는 이와 같은 역할 상실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 관계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활동이론의 관점으로 남편의 은퇴 후 부부간 공유 활동이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간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개인의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하여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2) 가사 노동 참여 관련 이론

남편의 은퇴 후 부부간 가사 노동 참여를 상대적 자원 가설(Relative Resources Perspective)로 설명할 수 있다. Blood와 Wolf(1960)에 의해 전개된 상대적 자원 가설은 부부간 의사 결정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배우자에 의해 주도권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부부간 가사 노동 분담에 적용해보면, 교육 수준, 개인의 소득수준, 직업 등의 자원은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을 결정하며,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배우자일수록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이기영 외, 2001, 재인용).

일반적으로 가사 노동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노동이며(문숙재·채옥희, 1992),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비가 필요한 특성이 있지만, 노동의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노동이 아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가사 노동을 남편이 하는지 아내가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누가 더 유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가사 노동을 둘러싸고 부부간에는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 상대적 자원이론의 핵심이다(은기수, 2009). 특히 남편들은 교육 수준, 소득, 직업상의 지위에 있어서 아내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사 노동 분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게 되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본다(문숙재 외, 2000).

자원의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인 소득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부간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가사 노동을 회피하고 소득이 적은 쪽이 가사 노동을 더 수행하게 된다(은기수, 2009). 그런데 남성이 은퇴한 후에는 은퇴 전보다 대체로 가정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자원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가사 노동을 수행할 수 있다(김영혜, 2004).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와 직업 역할의 상실은 부부간 가사 노

동의 수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원이론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시간 자원이다. 시간 자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용가능 시간 가설(The Time Availability Perspective)을 별도의 가설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채옥희, 2004), 이는 이용가능한 시간 즉, 가사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시간 동안 가사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생활주기에 비해 노년기에는 남성의 가사참여도가 증가할 수 있다(김태현·전길양, 1997). 즉, 노년기 남성의 가사참여는 경제 활동으로부터의 은퇴가 가져다 주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상실감을 대체하고 은퇴 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은퇴 후 남성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이 아내가 소유한 시간 자원과 일정 부분 그 차이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편의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사 노동의 책임은 아내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태현과 전길양(1997)의 연구에서 노년기 부부의 가사역할 수행 실태를 알아본 결과, 69.7%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가 분담한다는 경우는 11.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영혜(2004)는 노인부부의 가사 노동 분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15개 항목 중 ‘집안 수리’, ‘쓰레기 버리기’, ‘이부자리 준비와 정리하기’ 등의 세 가지 영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반찬 만들기’ 항목에서, 남성은 ‘집안 수리’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부부가 비슷하게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이부자리 준비와 정리하기’로 나타났다. 특히 ‘반찬 만들기’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92.4%가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정(2006)의 연구에서 은퇴 이전과 이후의 가사 노동 분담실태를 살펴본 결과, ‘시장보기’와 ‘집안 청소’의 영역에서는 은퇴 이후 남편의 참여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였으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아내의 주도에 의해 가사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의 가사 노동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가사 노동 부담은 특히 식생활영역에서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의 식생활관련 가사 노동의 수행 실태를 분석한 이기영 외(1998)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 214 쌍과 도쿄에 거주하는 부부 136쌍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사 노동 수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식생활관련 가사 노동은 거의 전적으로 아내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취업상태와 상관없이 남편의 식사준비의 부담은 낮은 수준이었다. 통계청의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4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 사이의 준고령층 부부의 아침과 저녁의 식사 관련행위를 분석한 김정석(2010)의 연구에 의하면, 식사준비, 식사행위, 설거지 등의 관련행위를 조사한 결과,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비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아내가 취업상태에 있거나 부부가 모두 비취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아침식사 84.9%, 저녁식사 74.3%로 나타나 아내가 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이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한다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상대적 자원 가설은 시간 자원 이외에 가사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흥미나 기술도 가사 노동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채옥희, 2004). 즉, 가사 노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자원 가설의 관점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배우자일수록 가사 노동을 덜 수행할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은퇴 후 부부가 소유한 자원이 비슷해지고, 남편 또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면서 은퇴 전에 비해 남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높은 배우자일수록 가사 노동을 더 수행하

게 된다는 점에서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고찰

1) 독립 변수

(1)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가족이 의·식·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노동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산력을 투입한 가사 노동으로 구성된다(문숙재·채옥희, 1992). 가사 노동(Domestic labor)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Shelton과 John(1996)은 가사 노동(Domestic labor)을 ‘집안일 또는 가사(household tasks/domestic labor)’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한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무급 노동(unpaid work)’이라고 정의하였다(Shelton and John, 1996). 또한 가사 노동은 ‘가사(domestic labor)’ 이상의 의미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Coverman(1989)에 의하면, 가사 노동은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을 보살피는 ‘감정노동(emotional work)’, 가족 구성원이 사회생활에서의 지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status enhancement’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Coverman, 1989). Nickell 등(1979)은 가사 노동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정 수준의 청결과 안정을 지키면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식사준비, 설거지, 가족원의 신체적 보살핌, 세탁 등의 의복관리, 구매 및 가계부 정리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가사 노동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김외숙(1981)은 가사 노동이

란 가족이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으로 가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개별가정에서 수행되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문숙재와 채옥희(1992)는 가사 노동이란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정에서 일상적이며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육체적·정신적인 노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송혜림(2000)은 무보수로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무급 노동이라고 하였다. 이기영 외(2011)에 의하면, 가사 노동은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가사 노동을 함께 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자녀 돌보기, 배우자 돌보기 등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가족의 결속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주며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이기영 외, 2011).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국외의 정의에서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수행을 위한 ‘status enhancement’와 같은 활동도 가사 노동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여 좀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 학자마다 개념을 정의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사 노동은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행해지는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의 측면에서 가사 노동은 부부 관계와 우울감과 같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시간과 체력의 소비를 필요로 하는 소비적인 특성을 지닌 가사 노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이 지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가사 노동의 참여는 아내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볍게 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다(채로, 2004).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는 여성의 만족감이나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송혜림(2000)에 의하면, 울산에 거주하는 부부가 모두 맞벌이인 기혼 남녀 290명을 대상으로 남편의 가사 노동에 따른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uitor(1991)에 의하면 남녀간에 가사 노동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때 결혼 생활의 질이 높아지며, 연령, 교육 수준, 아내의 직업적 지위 등의 변수들보다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가 결혼 만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Pina와 Bengtson(1993)은 정규직에 종사하고 평등주의적인 성 이데올로기의 가치관을 지닌 기혼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가사 노동 분담에 있어서 불평등함을 느낄수록 행복감과 결혼 생활에서 만족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남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적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밝혔다(Pina and Bengtson, 1993). 이는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는 아내로 하여금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Pina and Bengtson, 1993). Stevens 외(2001)³⁾는 미국의 맞벌이 부부 156쌍을 대상으로 가사 노동과 결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은 결혼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를 낮게 지각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가사 노동에 참여할수록 결혼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생애주기단계에 걸쳐서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은 결혼 생활의 질과 관련이 있는데(Suitor, 1991), 가사 노동 분담은 여성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부부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ee와 Shehan(1989)에 의하면, 가사 노동 분담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여성일수

3) Stevens 외(2001)는 가사 노동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Coverman(1989)의 개념을 토대로, 가사 노동의 영역을 'domestic labor', 'emotional work', 'status enhancement'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록 우울증이 높고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으며,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화용·조병은, 1999, 재인용). Kluwer 외(1996)는 아내의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한 불만족은 공공연한 부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Kluwer 외(1996)에 의하면 5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가사 노동 분담과 유급노동이 부부 관계에서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급노동보다 가사 노동 분담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내가 가사 노동 분담에 있어서 더 갈등을 경험하며 부부 관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가사 노동의 참여가 여성의 부부 관계나 결혼 생활, 우울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는 달리, 은퇴 후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보다는 가정 내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Crawford, 1971; Brubaker, 1985; Brubaker and Ade-Ridder, 1986; 신화용·조병은, 1999, 재인용), 가사 노동 분담이 여성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지만 그러한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남성의 가사 노동의 참여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생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채로(2004)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 양국의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분석하기 위한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112쌍을 대상으로 가사 노동 시간 투입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내보다 남편의 가사 노동 시간이 높은 집단에서 부부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남편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남편과 아내 모두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가사 노동의 참여는 아내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며 결국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 노동 분담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아내의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한 불만족은 부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남편의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한 불만족은 부부 갈등과는 관련이 없음을 제시하였다. Burke와 Weir(1976)는 부부 189쌍을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 남편은 남편의 가사 참여를 요구하는 아내의 압력으로 인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혼 생활에서의 만족감이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으로 은퇴 후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김태현·전길양, 1997; 신화용·조병은, 1999). 김태현과 전길양(1997)의 연구에서 가사 노동 분담 정도는 결혼 만족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남편을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가사 노동 분담 정도는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사 노동과 같은 부부의 역할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Kessler와 McLeod(1984)에 따르면 여성은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적고 가사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남성보다 더욱 경험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이 더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김영혜(2004)의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은퇴한 남녀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가사 노동 분담이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차원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사 노동을 많이 분담하는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사 노동 분담은 여성의 우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우울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산출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역할 태도와 가사 노동 분담 정도의 일치 여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 노인의 경우 여성 노인

보다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남성 노인들의 경우에는 아내가 가사 노동을 수행할수록 우울감이 감소하지만, 현실에서 가사 노동을 수행해야할 경우 남성의 우울감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Glass와 Fujimoto(1994)가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자료에서 표본 추출된 미국의 기혼 남녀 3,846명을 대상으로 부부 간 가사 노동에 따른 우울감을 분석한 결과,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남편과 아내 모두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사 노동의 양과 질이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면, 좁게는 가정의 복지에, 보다 넓게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유에리, 1998). 가족 구성원이 수행하는 가사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가사 노동의 질은 가사 노동의 인지적 요소 중 하나인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Steidle와 Bratton(1968)은 가사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요소로써 인지적·정서적·신체적·시간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인지적 요소는 지적인 활동으로, 가사 노동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며,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이에 해당된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란 가사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시켜 수행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유에리, 1998). 또한 가사 노동은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노동이기 때문에 수행 능력과 흥미를 필요로 한다(채로, 2004). 즉, 가사 노동에 대한 과중한 부담 속에서 가사 노동을 잘 못 하거나 흥미가 없으면 더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반대로 가사 노동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수록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Wheeler(1981)는 부부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은 가사에 대한 책임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가사 노동을 잘 수행한다고 지각할수

록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된다고 하면서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Wheeler, 1981; 유애리, 1998, 재인용).

실제로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결혼 생활에서의 만족감은 높아질 수 있다. 유애리(1998)의 연구에서 가사 노동 수행 요소의 한 영역인 가사 노동 수행 능력에 따른 주부의 가정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유애리(1998)에 의하면 주부의 가사 노동 수행요소와 가정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은 주부의 가정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주부는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가정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송혜림(2000)의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를 대상의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에 따른 가사 노동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가사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과거와 비해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남성의 가사 참여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수행하는 가사 노동의 질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성의 가사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가사 노동 분담과 부부 관계 및 우울감에 따른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지만, 가사 노동에 대해 불만족을 느낄수록 정신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만약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불만족을 느낀다면 이러한 경향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감은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가사 노동의 질적인 측면인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양적인 측면인 가사 노동 분담은 부부 관계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Shelton과

John(1996)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사 노동 수행 능력, 가사 노동 분담이 은퇴 후 부부 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부부간 공유 활동

많은 연구들에 의해 부부간 공유 또는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부부 관계나 결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Synder(1979), Miller(1976) 등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결혼 만족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고, Lewis와 Spanier(1979)는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이기영 외, 1995).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이나 활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부부가 공유하는 활동은 주로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과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많은 연구에서는 개인이 혼자 하는 활동보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 외(1995)는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 291쌍을 대상으로 공유여가시간에 따른 결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부부가 함께 여가 활동을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태현과 전길양(1997)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을 조사한 결과, 사회 활동 참여에서 부부가 따로 참여하는 경우보다 부부가 함께 참여할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정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년기 남녀 525명을 대상으로 여가패턴과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혼자 또는 자녀, 친구,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는 집단보다 배우자와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집단의 가족응집도와 가족규율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부가 여가를 공유하는 정도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며(최진이, 2010), 부부가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노년기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가시간의 공유는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선미와 김정신(2002)의 연구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부 218쌍을 대상으로 노년기 부부의 생활 만족도와 우울감을 조사한 결과, 아내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공유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Patterson(1974)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는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여 결혼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함께 하는 활동이 부부 관계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가 또는 부정적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공유 활동이 부부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부간 공유여가 활동이 부부 관계나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공유 활동에 대한 연구는 임소진(2011)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임소진(2011)은 우리나라 중년기 성인 남녀 711명을 대상으로 개인영역과 가족영역이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족의 반복적이며 일상적인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소진(2011)의 연구는 중년기 성인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로써, 부부 관계나 개인적 특성과 같은 우울감을 살펴본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으로부터,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삶의 질에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부부 관계나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여가 활동 이외에 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주고 받는 정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정도 등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공유 활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임소진(2011)의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여가 활동 이외에 부부간에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공유 활동의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 척도는 가족의 여가참여정도뿐만 아니라, 경조사 및 친목모임 참여정도, 의사 소통정도 등 가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부부간 공유활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은퇴 후 가정 내에서 주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얼마나 자주 함께 활동을 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은퇴 후 부부 관계나 우울감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제 변수

(1) 연령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상실, 건강약화 및 사회참여의 감소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Edwards and Klemmack, 1973; Liang, 1982; 원영희, 1995, 재인용),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남녀 전체를 살펴보면, 원영희(1995)의 연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의 정도가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오선주(2002)의 연구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41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결혼의 질을 조사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생활의 질을 낮게 인식하고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허미화(2004)의 연구에서 연령은 결혼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결혼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태현과 전길양(1997)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 생활 만족도는 결혼 초기에는 만족도가 높고 다시 낮아졌다가 노년기에 다시 상승하는 U자형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년기에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기숙(1984)에 의하면 부산에 거주하는 주부 430명을 대상으로 부부 적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족주기별 부부 적응은 누운 S자형 곡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신혼기에는 높고,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는 감소하고,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령기에는 다시 증가하다가 중·노년기에는 다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노년기 은퇴자의 우울감에 관한 Tuohy 외(2005)의 연구에서 50대 중반부터 점점 우울감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보고하였다(Tuohy et al., 2005; 김효정, 2007, 재인용). 이종범 외(1984)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 851명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측정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녀별로 살펴보면, 김병하와 남철현(1999)에 의하면 60세 이상 유배우 노인 1,138명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은퇴한 남편을 둔 부부 178쌍의 부부 관계와 결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아내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내가 지각하는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남편의 연령은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교육 수준

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lish, 1975; Markides and Martin, 1979; 원영희, 1995, 재인용). 남녀 전체를 살펴보면,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혼남녀 2,988명을 대상으로 가족공유 활동이 부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양지훈(2012)의 연구에서 부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한편, 교육 수준이 결혼 만족도나 결혼갈등정도 또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원영희, 1995; 신화용·조병은, 1999, 오선주, 2002).

남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 158쌍을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 조지은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았지만 아내의 결혼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규련(1984)의 연구에서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아내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남편의 교육 수준은 결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는 다르게, 김병하와 남철현(1999)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3)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 상태는 남녀 모두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며(Medley, 1976),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차원인 행복감, 우울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원영희(1995)의 연구에서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병하와 남철

현(1999)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을 낮게 지각하였다. 김영혜(2004)의 연구에서 신체적인 상황은 노년기 우울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 Butterworth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성인일수록 우울감과 같은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2007)의 연구에서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송지은과 Marks(2007)의 연구에서 미국의 전국규모의 종단자료인 'the National Study of Families and Households; NSFH'의 50세 이상 성인 남녀 1,798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정신 건강을 분석한 결과, 신체 건강의 저하를 크게 경험한 응답자일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권은비(2010)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상태는 은퇴자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하였다. 즉,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은퇴 후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연구에서 건강 상태는 남녀 모두 결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가구 소득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는 우울 증상과 관련되어 있으며(Higginbottom et al., 1993; 김효정, 2007, 재인용), 경제적 수준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원영희(1995)의 연구에서 경제적인 소득은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유리(2000), 양지훈(2012)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나 부부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신화용과 조병은(1999), 허미화(2004)의 연구에서 소득과 결혼 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최규련(1984), 기승주(1988)의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내는 결혼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남편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자녀 수

자녀 수가 부부 관계나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대체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숙(1995)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의 시간, 에너지, 경제적 자원을 소진하게 하여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홍보선(1994)의 연구에서는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주부의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허미화(2004), 조지은 외(2007)의 연구에서 자녀 수는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은퇴 전 직업 및 은퇴 기간

직업은 결혼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지만, 은퇴 전 직업과 은퇴 기간이 은퇴 후 부부 관계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은퇴 관련 변수에 따른 은퇴한 남성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은퇴 전에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자영업 등에 종사하였던 경우에 비해 전문관리직에 종사했던 사람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은퇴 기간은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권은비, 2010). 장은정(2006)의 연구에서 은퇴 전 직업과 은퇴 기간은 부부 관계의 질적인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근대적인 경향을 보이며(최규련, 1984; 기승주, 1988; 김영혜, 2004; Stevens et al., 2001), 성역할 태도가 양성 평등적인 집단이 전통적인 집단에 비해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높고(김태현·박주희, 2005),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일수록 부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유리, 2000).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양성 평등적인 아내는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지은 외, 2007). 최규련(1984)에 의하면, 전북에 거주하는 41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남편이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수록 아내는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남편이 아내보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수록 아내의 결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남성의 성역할 태도보다 더 근대적으로 나타났다으나 결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승주(1988)의 연구에서 아내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남편의 성역할 태도는 근대적일수록 아내의 결혼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남편 자신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아내의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일수록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높았다. 즉, 남편이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경우와 아내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경우 부부 모두 결혼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Stevens 외(2001)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근대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성역할 태도와 결혼 생활 만족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통제 변수를 설정하였다.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변수로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소득, 자녀 수, 성역할 태도 등을 선정하였다. 우울감에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소득, 은퇴 전 직업 및 은퇴 기간 등의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가사 참여도와 부부간 공유 활동이 부부 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부부 관계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 및 관련 변수의 경향성과 차이는 어떠한가?

- 1-1)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한다.
- 1-2)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의 실태를 파악한다.
- 1-3) 부부간 공유 활동의 실태를 파악한다.
- 1-4) 관련 변수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의 차이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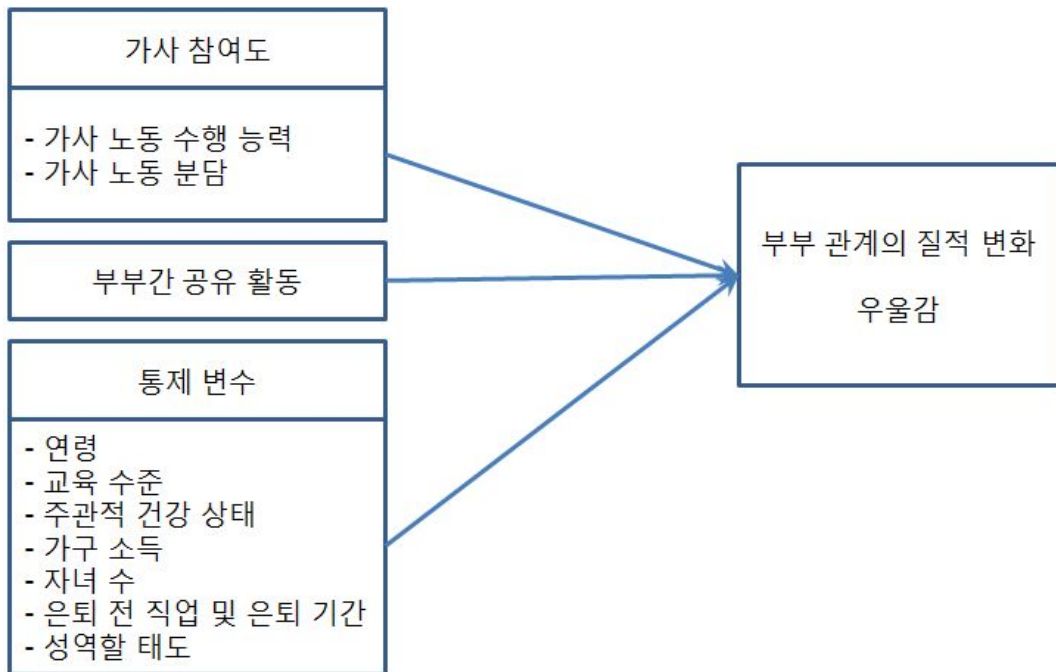
【연구 문제 2】 관련 변수들과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및 우울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 2-1) 가사 노동 수행 능력, 가사 노동 분담과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의 관계를 알아본다.
- 2-2) 부부간 공유 활동과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의 관계를 알아본다.
- 2-3)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3】 은퇴한 남성과 배우자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3-1) 남녀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다.
- 3-2) 남녀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다.
- 3-3) 영역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영역별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자료 및 측정 도구의 구성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3월 4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 및 전북 지역에 거주하고,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은퇴한 남성 또는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 367명이며, 은퇴 후 생애 주된 일자리와는 다른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비확률 표집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같은 직종에 종사하였던 은퇴자들로 조직된 비공식적인 모임과 지역의 복지관 및 은퇴자들을 위한 재취업·창업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사 대상자들을 표집하였다. 배포된 400부의 설문지 가운데 392부가 회수되었으나, 적절하지 않은 25부를 제외한 총 367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남성(n=176)		여성(n=191)		전체(n=367)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176	48.0	191	52.0	367	100.0
연령	60세 미만(46세-59세)	45	25.6	90	47.1	135	36.8
	60세 이상-65세 미만	62	35.2	66	34.6	128	34.9
	65세 이상	69	39.2	35	18.3	104	28.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6	3.4	9	4.7	15	4.1
	중학교 졸업	16	9.1	33	17.3	49	13.4
	고등학교 졸업	82	46.6	90	47.1	172	46.9
	대학교 졸업	58	33.0	53	27.7	111	30.2
	대학원 졸업	14	8.0	6	3.1	20	5.4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하지 않음	18	10.2	27	14.1	45	12.3
	보통	59	33.5	51	26.7	110	30.0
	건강함	99	56.3	113	59.2	212	57.8
가구 소득	150만원 이하	62	35.2	63	33.0	125	34.1
	151만원-250만원 이하	56	31.8	65	34.0	121	33.0
	251만원 이상	58	33.0	63	33.0	121	33.0
혼인 기간	30년 이하	62	35.2	63	33.0	125	34.1
	31년-36년 이하	50	28.4	71	37.2	121	33.0
	37년 이상	64	36.4	57	29.8	121	33.0
가족 수	2명	59	33.5	41	21.5	100	27.2
	3명-4명	87	49.4	89	46.6	176	48.0
	5명 이상	30	17.0	61	31.9	91	24.8
자녀 수	0-1명	23	13.1	21	11.0	44	12.0
	2명-3명	133	75.6	145	75.9	278	75.7
	4명 이상	20	11.4	25	13.1	45	12.3
성역할 태도	전통적	62	35.2	48	25.1	110	30.0
	근대적	114	64.8	143	74.9	257	70.0

먼저 성별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367명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여성이 52.0%(191명), 남성이 48.0%(176명)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은 46세에서 81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60세 미만' 25.6%(45명), '60세 이상-65세 미만' 35.2%(62명), '65세 이상' 39.2%(69명)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60세 미만' 47.1%(90명), '60세 이상-65세 미만' 34.6%(66명), '65세 이상' 18.3%(35명)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성의 연령이 여성의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46.6%(82명), '대학교 졸업' 33.0%(58명), '중학교 졸업' 9.1%(16명), '대학원 졸업' 8.0%(14명),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47.1%(90명), '대학교 졸업' 27.7%(53명), '중학교 졸업' 17.3%(33명), '초등학교 졸업 이하' 4.7%(9명), '대학원 졸업' 3.1%(6명) 순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 상태는 남녀 모두 '건강한 편'이거나 '보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약 90%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10.2%(18명), 여성의 14.1%(27명)만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남성의 경우 '150만원 이하' 35.2%(62명), '151만원-250만원 이하' 31.8%(56명), '251만원 이상' 33.0%(5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151만원-250만원 이하' 34.0%(65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50만원 이하'와 '251만원 이상'이 각각 33.0%(63명)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혼인기간은 남성의 경우 '30년 이하' 35.2%(62명), '30년-36년 이하' 28.4%(50명), '37년 이상' 36.4%(64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30년 이하' 33.0%(63명), '30년-36년 이하' 37.2%(71명), '37년 이상' 29.8%(57명)으로 나타났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는 '3명-4명'이라는 응답이 남성과 여성 각각 49.4%(87명), 46.6%(8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수는 '2명-3명'이라는 응답이 남성의 75.6%(133명), 여성의 75.9%(145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는 '근대적'인 집단의 비율이 각각 남성 64.8%(114명), 여성 74.9%(143명)로 나타나 남녀 모두 '전통적'인 집단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남성 조사 대상자와 여성 조사 대상자의 남편의 전반적인 은퇴 상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남성 및 여성 조사 대상자 남편의 은퇴 상황

변수	구분	남성		여성 조사 대상자의 남편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은퇴 기간	3년 이하	65	36.9	74	38.7
	4년-6년 이하	58	33.0	66	34.6
	7년 이상	53	30.1	51	26.7
	n	176	100.0	191	100.0
은퇴 전 직업	고위관리직	20	11.4	16	8.4
	전문직	23	13.1	19	9.9
	사무직	53	30.1	78	40.8
	판매 및 서비스직	25	14.2	31	16.2
	농/어/임업 등 생산직	15	8.5	18	9.4
	기능직	36	20.5	28	14.7
	기타	4	2.3	1	.5
	n	176	100.0	191	100.0
소일거리 참여 여부	하고 있지 않다	70	39.8	92	48.2
	하고 있다	106	60.2	99	51.8
	n	176	100.0	191	100.0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	25시간 이하	44	25.0	24	12.6
	26시간-40시간 이하	22	12.5	25	13.1
	41시간 이상	40	22.7	50	26.2
	n	106	60.2	99	51.8
월 평균 근로 소득	80만원 이하	43	24.4	25	13.1
	81만원-150만원 이하	41	23.3	51	26.7
	151만원 이상	22	12.5	23	12.0
	n	106	60.2	99	51.8

먼저 남성의 은퇴 기간을 살펴보면, ‘3년 이하’ 36.9%(65명), ‘4년-6년 이하’ 33.0%(58명), ‘7년 이상’ 30.1%(53명)로 나타났고, 여성 조사 대상자 남편의 은퇴 기간은 ‘3년 이하’ 38.7%(74명), ‘4년-6년 이하’ 34.6%(66명), ‘7년 이상’ 26.7%(51)명으로 나타나 은퇴 기간은 ‘3년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퇴 이전의 직업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고위관리직’ 11.4%(20명), ‘전문직’ 13.1%(23명), ‘사무직’ 30.1%(53명), ‘판매 및 서비스직’ 14.2%(25명), ‘농/어/임업 등 생산직’ 8.5%(15명), ‘기능직’ 20.5(36명), ‘기타’ 2.3%(4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조사 대상자 남편의 경우 ‘고위관리직’ 8.4%(16명), ‘전문직’ 9.9%(19명), ‘사무직’ 40.8%(78명), ‘판매 및 서비스직’ 16.2%(31명), ‘농/어/임업 등 생산직’ 9.4%(18명), ‘기능직’ 14.7%(28명), ‘기타’ .5%(1명)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60.2%(106명)와 여성 조사 대상자 남편의 51.8%(99명)가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는 소일거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5시간 이하’ 25.0%(44명), ‘41시간 이상’ 22.7%(40명), ‘26시간-40시간 이하’ 12.5%(2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조사 대상자 남편의 경우에는 ‘41시간 이상’이 26.2%(5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일거리를 통한 월평균 개인의 근로소득에서는 남성의 경우 ‘80만원 이하’ 24.4%(43명), ‘81만원-150만원 이하’ 23.3%(41명)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여성 조사 대상자 남편의 경우에는 ‘81만원-150만원 이하’가 26.7%(5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도구

(1)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본 연구는 종속 변수인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동숙(1991), 손승영(1994), 신화용(1996)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장은정(2006)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장은정(2006)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관한 척도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정서적 친밀도·의사소통 효율성·여가 공유도 등 3개의 하위 변수로 구성되었으나, 여가 공유도를 제외하고 정서적 친밀도를 알아보는 4개의 문항과 의사소통 효율성을 알아보는 3개의 문항을 포함한 총 7개의 문항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여가 공유도를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의 독립 변수 중 부부간 공유 활동이 여가 공유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장은정(2006)이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개념적 구분이 안 되고, 독립 변수를 측정한 항목들과 종속 변수를 측정한 항목들이 중복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에서는 여가 공유도를 제외하고 정서적 친밀도와 의사소통 효율성의 두 가지 하위 변수들로만 구성하였다.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는 은퇴 후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도와 의사소통 효율성에 있어서의 변화 정도를 말한다. 정서적 친밀도에 있어서의 긍정적 변화는 남편과 아내가 가지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적 지원과 심리적 의존도 및 가깝고 소중하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은퇴 후 의지할 사람은 아내(남편) 밖에 없는 것 같다’, ‘은퇴 후 아내(남편)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은퇴 후 아내(남편)는 나에게 전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은퇴 후 우리 부부는 더욱 평등한 관계인 것 같다’ 등이다. 의사소통 효율성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은퇴 전에 비해 ‘은퇴 후 아내(남편)는 잔소리를 더 많이 한다’, ‘은퇴 후 우리 부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은퇴 후 남편

(아내)과 대화가 더 잘 통하는 것 같다’ 등의 의사 소통 효율성을 묻는 3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중, 신뢰도 분석 결과를 통해 신뢰도를 저해하는 3번 문항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6개의 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이다. 점수는 6점에서 3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친밀도와 의사 소통 효율성이 은퇴 전보다 은퇴 후에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회귀분석 시 종속 변수가 되는 부부 관계의 긍정적 변화 정도는 하위 변수들의 합을 통해 산출한 평균값을 그 최종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0이며, 남성의 Cronbach α 는 .80, 여성의 Cronbach α 는 .81 이었다.

<표 3>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변수	문항 수	점수 범위	신뢰도		
			남성	여성	전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6문항	6점 - 30점	.804	.812	.804
정서적 친밀도	4문항	4점 - 20점	.707	.751	.724
의사 소통 효율성	2문항	2점 - 10점	.816	.772	.797

(2) 우울감

종속 변수인 우울감은 현재 생활에서의 만족하는 정도, 무기력함, 앞날에 대한 희망감, 타인과의 상대적인 비교 등 은퇴 후 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우울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백석(1996), 김효정(2007)의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 도구(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GDSSF-K)’를 사용하였다. 기백석(1996), 김효정(2007) 등이 사용한 이 척도는 Sheikh와 Yesavage(1986)가 개발한 GDS 단축형을 기백석(1996)이 번역하고 표준화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

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하는 양분 척도로써, 긍정적인 느낌을 묻는 문항을 중심으로 ‘그렇다’ 0점, ‘아니다’ 1점을 부여하였다. 이 중 부정적인 느낌을 묻는 3·4·6·8·9·12·13번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총 15문항이며 0점에서 15점 사이에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 분포에서 5점 이하를 정상, 6점에서 9점까지는 중등도의 우울 증상, 10점 이상을 우울증으로 구분하였다(기백석, 1996; 김효정, 2007).

문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예전에 좋아했던 일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 ‘사는게 허전하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진다’, ‘대체로 기분이 좋은 편이다’, ‘앞날에 대해 걱정될 때가 많다’, ‘대체로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고 한다’, ‘나의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한다’, ‘가치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0이며, 남성의 Cronbach α 는 .81, 여성의 Cronbach α 는 .80 이었다.

<표 4> 우울감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변수	문항 수	점수 범위	신뢰도		
			남성	여성	전체
우울감	15문항	0점 - 15점	.806	.795	.801

(3) 가사 참여도

① 가사 노동 수행 능력

은퇴 후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애리(1998)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가사 노동의 5가지 영역의 세부 항목의 내용은 이

미숙(1995)과 김영혜(2004)의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유애리(1998)는 가사 노동 수행 요소에 해당하는 인지적·정서적·시간적 요소 등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Steidle과 Bratton(1968)의 연구에 기초하여,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가사 노동 수행 능력에 관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란 가사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 즉, 가사 노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 척도는 유애리(1998)의 척도의 육아영역을 돌봄영역으로 수정하여, 의생활영역·의식생활영역·주생활영역·구매 및 가정경영영역·돌봄영역 등의 5가지 영역, 총 18개의 문항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의생활영역은 ‘빨래하기(세탁기 사용 포함)’, ‘세탁물 널기’, ‘다림질’ 등이며, 식생활 영역은 ‘밥짓기’, ‘반찬 만들기’, ‘간식 만들기’, ‘상 차리기’, ‘설거지’ 등이고, 주생활영역은 ‘집안 가꾸기(정원 손질, 화초 가꾸기)’, ‘집안 청소 및 물품정리’, ‘집안 수리(전교체, 못 박기)’, ‘쓰레기 버리기(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으로 분류하였다. 구매 및 가정경영에 관한 영역은 ‘시장보기·쇼핑하기’, ‘가계부 기록’, ‘재산 관리(은행 및 관공서 업무)’ 등으로, 돌봄영역은 ‘손자녀 돌봄(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노인 및 기타 가족원 돌봄’, ‘애완동물 돌봄(먹이기, 씻기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5단계 Likert척도로써 ‘매우 잘한다’ 5점, ‘잘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못한다’ 2점, ‘매우 못한다’ 1점, ‘해당사항없음’은 0점(결측치)으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0점에서 9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5이며, 남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6, 여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5 이었다.

<표 5>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변수	문항 수	점수 범위	신뢰도		
			남성	여성	전체
가사 노동 수행 능력	18문항	0점 - 90점	.957	.949	.953

② 가사 노동 분담

가사 노동 분담은 남편과 아내 중 주로 누가 가사일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미숙(1995), 김영혜(2004), 장은정(2006)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유애리(1998)의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가지 영역과 18개의 세부 항목은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척도와 동일하다. 응답 범주는 ‘남편이 거의 다 한다’ 1점, ‘남편이 많이 하는 편이다’ 2점, ‘부부가 비슷하게 한다’ 3점, ‘아내가 많이 하는 편이다’ 4점, ‘아내가 거의 다 한다’ 5점, ‘해당사항없음’ 0점(결측치)으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0점에서 9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시에는 각 항목의 합을 통해 산출한 평균값을 그 최종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1이며, 남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1, 여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9 이었다.

<표 6> 가사 노동 분담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변수	문항 수	점수 범위	신뢰도		
			남성	여성	전체
가사 노동 분담	18문항	0점 - 90점	.910	.891	.911

(4) 부부간 공유 활동

부부간 공유 활동은 은퇴 후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나 가족과의 소규모 모임 및 친목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 의사 소통 정도를 의미한다.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활동 이외에 일상적인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소진(2011)의 ‘정형화된 가족 일상(Family Rotual)’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부부를 중심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정형화된 가족일상’이란 반복적으로 가족과 함께 행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이기숙, 2003; Bossard·Boll, 1950; 임소진, 2011, 재인용). 본래 ‘정형화된 가족일상’은 어성연과 Shelley(2005)가 개발한 IFS 척도의 9개의 문항을 임소진(2011)이 한국 정서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11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 연구는 부부의 ‘정형화된 일상’을 묻는 내용으로 문항을 수정하여 총 10개의 문항으로 다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내용에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자주 한다’ 5점, ‘자주 한다’ 4점, ‘드물게 한다’ 3점, ‘거의 자주 하지 않는다’ 2점, ‘전혀 하지 않는다’ 1점이다. 점수는 10점에서 5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관계가 좋고, ‘정형화된 가족일상’에 자주 참여하며,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시에는 부부간 공유 활동의 각 항목들의 합을 통해 산출한 평균값을 그 최종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1 이며, 남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0, 여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2 이었다.

<표 7> 부부간 공유 활동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변수	문항 수	점수 범위	신뢰도		
			남성	여성	전체
부부간 공유 활동	10문항	10점 - 50점	.804	.819	.812

(5) 통제 변수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였고, 분산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60세 미만(46세-59세)’, ‘60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조사 시

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문항은 ‘매우 않 좋다’ 1점에서부터 ‘매우 건강하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를 다시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함’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연금·이자·국가의 보조금·자녀가 주는 용돈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150만원 이하’, ‘151만원-250만원 이하’, ‘251만원 이상’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자녀 수는 따로 사는 자녀와 함께 사는 자녀, 미혼자녀와 기혼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0-1명’, ‘2명-3명’, ‘4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은퇴 전 직업은 ‘고위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농/어/임업 등 생산직’, ‘기능직’, ‘전업주부’, ‘기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가정 내 역할과 직업적 역할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의미한다. 성역할 태도는 Osmond와 Martin(1975), 기승주(1988), 이정아(1997), 정승혜(1988), 장상희(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조하여 척도를 구성한 김영혜(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단계 Likert 척도로써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하였다. 10점에서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낸다.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집단과 ‘전통적’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3점 이하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로, 24점 이상은 ‘근대적 성역할 태도’로 나누었으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 0점, ‘근대적 성역할 태도’ 1점을 부여하였다(김영혜, 2004).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4 이며, 남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4, 여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5 이었다.

<표 8> 성역할 태도의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변수	문항 수	점수 범위	신뢰도		
			남성	여성	전체
성역할 태도	10문항	10점 - 40점	.836	.845	.84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은 <표 9>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9>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구분	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종속 변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우울감		1=아니다(우울하다)	0=그렇다(우울하지 않다)
독립 변수	가사 참여도	가사 노동 수행 능력	1=매우 못한다 2=못한다 3=보통이다	4=잘한다 5=매우 잘한다 888=해당사항없음
		가사 노동 분담	1=남편이 거의 다 한다 2=남편이 많이 하는 편이다 3=부부가 비슷하게 한다	4=아내가 많이 하는 편이다 5=아내가 거의 다 한다 888=해당사항없음
	부부간 공유 활동		1=전혀 하지 않는다 2=거의 자주 하지 않는다 3=드물게 한다	4=자주 한다 5=매우 자주 한다
통제 변수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만 세	1=60세 미만(46세-59세) 2=60세 이상-65세 미만 3=65세 이상
	교육 수준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이하 3=고등학교 졸업 이하	4=대학교 졸업 이하 5=대학원 졸업 이상
	주관적 건강 상태		1=매우 안 좋음 2=안 좋음 3=보통 4=건강한 편 5=매우 건강함	1=건강하지 않음 2=보통 3=건강함
	가구 소득		만원	1=150만원 이하 2=150만원-250만원 이하 3=251만원 이상
	자녀 수		명	1=0-1명 2=2명-3명 3=4명 이상
	은퇴 전 직업		1=고위관리직 2=전문직 3=사무직 4=판매 및 서비스직	5=농/어/임업 등 생산직 6=기능직 7=전업주부 8=기타
	성역할 태도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1=근대적 0=전통적

3) 통계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Versio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은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사용하였고, 척도의 문항간 내적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 1>의 관련 변수들과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및 우울감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남녀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을 위하여 Scheffe 검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2>의 관련 변수들과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및 우울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3>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남녀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우울감, 독립 변수에 관한 경향성

조사 대상자인 은퇴한 남성과 배우자들의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 및 관련 변수들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 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녀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도 및 의사 소통 효율성과 관련된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관한 전체 평균은 <표 10>과 같다.

<표 10>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대한 성차

변수	남성(n=176)		여성(n=191)		<i>t</i>
	M	SD	M	SD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3.12	.65	3.14	.64	-.380
정서적 친밀도	3.23	.67	3.22	.72	.194
의사 소통 효율성	2.89	.82	3.00	.69	-1.335
우울감	5.01	3.54	4.50	3.36	1.396

남녀별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은 3.1점, 여성은 3.1점으로 중간값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은퇴 이후 정서적 친밀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통계적 검증 결과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의 한 측면인 정서적 친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값은 3.2점, 여성의 평균값은 3.2점으로, 통계적 검증 결과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사 소통 효율성의 경우 남성의 평균값은 2.9점, 여성의 평균값은 3.0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의사 소통 효율성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 검증 결과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은퇴 이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남녀간 인식을 살펴보면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 관계의 질적 측면에 있어 정서적 친밀도와 의사 소통 효율성의 모든 면에서 은퇴 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한 장은정(2006)의 연구와, 은퇴 후 부부 관계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Vinick과 Ekerdt(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정서적 친밀도와 의사 소통 효율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은퇴 후에는 비교적 부부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의 전체 평균은 <표 10>과 같다. 우울감은 우울 증상의 유무와 심한 정도를 판단하는 절단점을 5점을 기준으로 하여 5점 이상을 우울하다고 판단하였는데(기백석, 1996),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우울감 점수는 총 15점 만점에 남성의 우울감 평균 점수는 5.0점, 여성의 우울감 평균 점수는 4.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은퇴한 남성 노인의 우울정도가 평균 6.2점으로 보고한 김효정(2007)의 연구 결과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통계적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남녀별 평균 점수는 각각 50.2점, 58.8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점수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통계 검증 결과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은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생활영역($t=-8.487, p<.001$), 식생활영역($t=-13.230, p<.001$),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t=-8.39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주생활영역과 돌봄영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식생활영역에서 남녀의 평균 점수는 각각 14.0점, 19.2

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주생활영역의 ‘집안 수리’가 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2.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여성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식생활영역의 ‘밥짓기’로 평균 점수가 3.9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은 <표 11>과 같다.

<표 11> 가사 노동 수행 능력에 대한 성차

변수	남성(n=135)		여성(n=149)		t
	M	SD	M	SD	
의생활영역(3점-15점)	9.05	2.70	11.22	2.20	-8.487***
빨래하기	2.99	.92	3.88	.72	
세탁물 널기	3.23	.99	3.88	.75	
다림질	2.82	1.24	3.49	.99	
식생활영역(5점-25점)	13.99	3.74	19.18	3.77	-13.230***
밥짓기	3.10	.95	3.90	.76	
반찬 만들기	2.49	.93	3.84	.89	
간식 만들기	2.45	.91	3.74	.86	
상 차리기	2.88	.89	3.87	.75	
설거지	3.15	.88	3.87	.78	
주생활영역(4점-20점)	14.35	3.18	13.11	2.49	-1.615
집안 가꾸기	3.49	1.05	3.55	.80	
집안 청소 및 물품정리	3.46	.94	3.58	.76	
집안 수리	3.98	.94	2.58	1.10	
쓰레기버리기	3.52	.97	3.51	.75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3점-15점)	7.90	2.48	9.94	2.16	-8.398***
시장보기·쇼핑하기	2.70	.98	3.68	.78	
가계부 기록	2.33	1.10	3.36	.90	
재산 관리	3.40	1.09	3.30	.77	
돌봄영역(3점-15점)	6.37	3.16	6.81	3.32	-1.129
손자녀 돌봄	2.91	1.02	3.46	.71	
노인 및 기타 가족원 돌봄	2.86	.90	3.34	.80	
애완동물 돌봄	2.89	1.08	3.16	.90	
합계(18점-90점)	50.17	11.94	58.75	10.17	-7.433***

*** $p < .001$

은퇴 후 가사 노동 분담의 실태는 <표 12>와 같다.

<표 12> 가사 노동 분담 평균(남성 N=130, 여성 N=142)

변수	M	SD
의생활영역	3.75	.93
빨래하기	3.93	.98
세탁물 널기	3.59	1.15
다림질	3.72	1.23
식생활영역	4.20	.73
밥짓기	4.06	1.02
반찬 만들기	4.40	.68
간식 만들기	4.41	.69
상 차리기	4.16	.94
설거지	3.97	1.00
주생활영역	2.71	.85
집안 가꾸기	2.96	1.20
집안 청소 및 물품정리	3.20	1.10
집안 수리	1.92	.97
쓰레기버리기	2.78	1.14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	3.68	.72
시장보기·쇼핑하기	3.96	.89
가계부 기록	4.21	.85
재산 관리	3.00	1.24
돌봄영역	3.52	1.02
손자녀 돌봄	3.70	1.01
노인 및 기타 가족원 돌봄	3.69	1.01
애완동물 돌봄	3.35	1.15
합계	3.61	.58

<표 12>를 살펴보면, 5가지 영역 중 평균 점수가 2.7점인 주생활영역을 제외한 4가지 모든 영역에서 중간값인 3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부부가 비슷하게 하거나 여전히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외적으로 ‘집안 수리’의 경우 평균이 1.9점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남성의 참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식생활영역의 평균 점수는 4.2점으로 5가지 영역 중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 정도가 비교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식 만들기’ 4.4점, ‘반찬 만들기’ 4.4점, ‘상 차리기’ 4.2점, ‘밥 짓기’ 4.1점, ‘설거지’ 4.0점 순으로 나타나 주생활영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식생활영역에서는 여성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주생활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집안 수리’ 1.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쓰레기 버리기’ 2.8점, ‘집안 가꾸기’ 3.0점, ‘집안 청소 및 물품정리’ 3.2점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가사 노동 분담 정도를 비교해보면, 전체 가사 노동 영역 중에서 남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생활영역의 ‘집안 수리’이고, 여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식생활영역의 ‘간식 만들기’이었으며, 부부가 비슷하게 분담하는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의 ‘재산 관리’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 후 가사 노동 분담 정도에 있어 여전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정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남성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영역에서만 수행 비율이 높고 여성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영역에서의 수행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은퇴 후에도 주로 여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정도가 높고, 가사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성별 분리가 일어난다고 밝힌 이미숙(1995), 김영혜(2004), 장은정(200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부부간 공유 활동의 결과는 <표 13>과 같다. 부부간 공유 활동의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중간값인 3점에 가까워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TV를 함께 시청한다’가 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함께 식사를 한다’ 3.9점, ‘대화를 나눈다’ 3.6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 받는다’ 라는 문항이 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3> 부부간 공유 활동 평균(남성 N=176, 여성 N= 191)

변수	M	SD
영화감상, 여행 등을 함께 한다	2.80	.92
결혼식, 장례식 등 가족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한다	3.32	.81
생일, 입학, 결혼기념일 등 소규모 가족모임에 함께 한다	3.25	.90
친목이나 동호회 등에 함께 참여한다	3.17	.97
종교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2.97	1.42
전화, 휴대폰문자,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다	2.97	1.17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 받는다	2.08	1.19
함께 식사를 한다	3.91	.77
TV를 함께 시청한다	3.95	.78
대화를 나눈다	3.62	.78
합계	3.20	.60

2.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 편차, t -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의 차이는 <표 14>와 같다. 남성은 주관적 건강 상태($F=4.267$, $p<.05$), 자녀 수($F=3.598$, $p<.05$), 성역할 태도($t=-1.885$, $p<.1$)에 따라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부부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밝힌 원영희(1995), 권은비(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자녀 수는 자녀가 없거나 1명인 집단과 2명에서 3명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 수가 2명에서 3명인 집단이 자녀가 없거나 1명인 집단보다 부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는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이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집단에 비해 부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역할 태도와 부부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 관계를 높게 지각한다고 밝힌 기존의 선행 연구들(최규련, 1984; 기승주, 1988; 김태현·박주희, 2005; 조지은 외, 2007)은 대체로 일반적인 기

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은퇴 후 중·노년기의 연령층에 속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 선행 연구들과는 연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의 남성 조사 대상자들은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평생을 일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이 요구됨에 따라 남성의 가사 참여가 불가피해진 현실 속에서 남성은 은퇴 후 과거와 현실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공간에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가사 노동을 아내가 수행할수록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는 연령($F=2.739, p<.1$), 교육 수준($F=2.549, p<.05$), 가구 소득($F=4.491, p<.05$), 성역할 태도($t=-3.531, p<.001$), 남편의 은퇴 기간($F=3.322, p<.05$)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힌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를 높게 지각한다고 밝힌 최규련(1984), 양지훈(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 관계나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들(최규련, 1984; 기승주, 1988; 원영희, 1995; 조유리, 2000; 양지훈, 2012)을 지지한다. 그리고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기승주(198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교육 수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 소득은 150만원 이하인 집단과 150만원-25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가구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집단이 가구 소득이 150만원-250만원 사이인 집단에 비해 부부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집단과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이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집단보다 부부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실제 가사 노동의 수행 정도는 상당히 불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 노동의 정도가 남성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일수록 현실에서의 불일치로 인해 부부 관계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일수록 가사 노동을 자신의 몫으로 여겨 부부 관계를 크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남편의 은퇴 기간은 은퇴 기간이 3년 이하인 집단과 6년 초과인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은퇴 기간이 3년 이하인 집단보다 6년이 초과된 집단에서 부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기간이 길수록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은퇴라는 사건이 은퇴한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에게는 당장에는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전환기적 사건일 수는 있지만, 은퇴 기간이 점차 길어질수록 부부는 새로운 역할과 변화에 점차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의 차이

변수		남성(n=176)					여성(n=191)				
		M	SD	F(t)	p	scheffe	M	SD	F(t)	p	scheffe
연령	60세 미만(a)	3.05	.63				3.06	.66			
	60세 이상-65세 미만(b)	3.11	.64	.501	.607	-	3.15	.64	2.739	.067†	-
	65세 이상(c)	3.17	.67				3.36	.67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a)	3.30	.55				3.27	.89			
	중학교 졸업(b)	2.98	.54				3.29	.66			
	고등학교 졸업(c)	3.14	.62	.355	.840	-	3.18	.62	2.549	.041*	-
	대학교 졸업(d)	3.08	.64				3.03	.58			
	대학원 졸업(e)	3.13	.89				2.50	.63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a)	2.75	.39				2.96	.51			
	보통(b)	3.07	.66	4.267	.016*	c>a	3.19	.57	1.359	.259	-
	건강함(c)	3.21	.65				3.17	.70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a)	3.19	.76				3.32	.76			
	151만원-250만원 이하(b)	3.04	.62	.787	.457	-	2.98	.55	4.491	.012*	a>b
	251만원 이상(c)	3.12	.53				3.14	.57			
자녀수	0-1명(a)	2.79	.65				3.06	.61			
	2명-3명(b)	3.18	.66	3.598	.029*	b>a	3.11	.64	2.232	.110	-
	4명 이상(c)	3.12	.45				3.39	.68			
성역할태도	전통적(a)	3.24	.65				3.42	.57			
	근대적(b)	3.05	.63	-1.885	.061†	-	3.05	.64	-3.531	.001***	-
은퇴기간	3년 이하(a)	3.12	.68				3.02	.65			
	4년-6년 이하(b)	3.13	.58	.027	.974	-	3.14	.63	3.322	.038*	c>a
	7년 이상(c)	3.10	.69				3.32	.63			

†p<.1, *p<.05, ***p<.001

2)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감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표 15>와 같다. 남성은 연령($F=3.298, p<.05$), 교육 수준($F=3.138, p<.05$), 주관적 건강 상태($F=13.098, p<.001$), 가구 소득($F=5.490, p<.01$), 은퇴 전 직업($F=3.017, p<.01$) 등의 변수가 우울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각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60세 미만의 집단과 60세에서 65세 미만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60세 미만인 집단이 60세에서 65세 미만인 집단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세 집단 간에 모두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보통이거나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원영희, 1995; 김병하·남철현, 1999; 김영혜, 2004; Butterworth et al., 2006; 송지은·Marks, 2007; 권은비, 2010)을 지지한다. 가구 소득은 150만원 이하 집단과 250만원 초과인 집단 간에, 그리고 150만원-250만원 이하인 집단과 250만원 초과인 집단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150만원 집단이 250만원 초과인 집단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이 150만원-250만원 사이인 집단이 250만원 초과인 집단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은퇴 전 직업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은 교육 수준($F=2.260, p<.1$), 주관적 건강 상태($F=7.293, p<.001$), 가구 소득($F=6.970, p<.001$), 남편의 은퇴 전 직업($F=4.421, p<.001$)에 따라 우울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각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

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보다 우울감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원영희, 1995; 김병하·남철현, 1999; 김영혜, 2004; Butterworth et al., 2006; 송지은·Marks, 2007; 권은비, 2010)을 지지한다. 가구 소득은 150만원 이하인 집단과 250만원 초과인 집단 간에, 그리고 가구 소득이 150만원-250만원 사이인 집단과 250만원 초과인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집단이 250만원 초과인 집단보다 우울감이 높고, 가구 소득이 150만원-250만원 사시인 집단이 250만원 초과인 집단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은퇴 전 직업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전에 기능직이나 생산직에 종사하였을수록 우울감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교육 수준이 높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고, 남편이 은퇴 전에 기능직이나 생산직에 종사하였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변수		남성 (n=176)					여성 (n=191)				
		M	SD	F(t)	p	Scheffe	M	SD	F(t)	p	Scheffe
연령	60세 미만(a)	5.93	3.28				4.68	3.37			
	60세 이상-65세 미만(b)	4.19	3.13	3.298	.039*	a>b	4.20	3.47	.418	.659	-
	65세 이상(c)	5.13	3.92				4.63	3.17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a)	8.00	3.22				5.77	2.04			
	중학교 졸업 이하(b)	6.93	2.81				4.87	3.40			
	고등학교 졸업 이하(c)	4.98	3.49	3.138	.016*	-	4.85	3.67	2.260	.064†	-
	대학교 졸업 이하(d)	4.48	3.76				3.73	2.85			
	대학원 졸업 이하(e)	3.78	2.45				2.00	1.41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하지 않음(a)	7.94	4.39				6.56	3.47			
	보통(b)	5.78	3.50	13.098	.001***	a>b>c	4.71	3.73	7.293	.001***	a>c
	건강함(c)	4.01	2.98				3.92	2.93			
가구 소득	150만원 이하(a)	5.56	3.84				5.02	3.33			
	151만원-250만원 이하(b)	5.66	3.76	5.490	.005**	a>c, b>c	5.22	3.39	6.970	.001***	a>c, b>c
	251만원 이상(c)	3.78	2.62				3.25	3.03			
은퇴 전 직업	고위관리직(a)	4.35	2.90				3.43	2.96			
	전문직(b)	5.08	3.39				4.00	2.13			
	사무직(c)	3.69	3.41				3.66	3.23			
	판매및서비스직(d)	5.52	3.86				5.35	3.22			
	농/어/임업 등 생산직(e)	6.60	2.84	3.017	.008**	-	4.77	3.11	4.421	.001***	-
	기능직(f)	5.86	3.67				6.35	3.73			
	기타(g)	8.25	2.62				13.00	-			

† $p < .1$, * $p < .05$, ** $p < .01$, *** $p < .001$

3.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우울감, 독립 변수간의 상관 관계

1)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간의 상관 관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5개의 모든 영역에서는 부(-)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은 의생활영역($r=-.660$, $p<.001$), 식생활영역($r=-.425$, $p<.001$), 주생활영역($r=-.616$, $p<.001$),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r=-.418$, $p<.001$), 돌봄영역($r=-.311$, $p<.001$)에서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가사 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가사 참여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송혜림(2000)의 연구를 지지한다.

여성은 주생활영역($r=.242$, $p<.001$),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r=.168$, $p<.05$), 돌봄영역($r=.309$, $p<.1$)에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주생활영역,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 돌봄영역에서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가사 참여도가 높은 것이다. 의생활영역과 식생활영역에서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간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간의 관계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간의 상관 관계

		남성	여성
		<i>r</i>	<i>r</i>
의생활영역	빨래하기	-.511***	.086
	세탁물 널기	-.609***	-.198**
	다림질	-.640***	.048
	합계	-.660***	-.091
식생활영역	밥짓기	-.418***	.036
	반찬 만들기	-.318***	.117
	간식 만들기	-.390***	.149*
	상 차리기	-.424***	.057
	설거지	-.351***	.087
합계	-.425***	.079	
주생활영역	집안 가꾸기	-.615***	.031
	집안 청소 및 물품 정리	-.504***	.081
	집안 수리	-.572***	.322***
	쓰레기버리기	-.485***	.158*
합계	-.616***	.242***	
구매 및 가정경영 영역	시장보기·쇼핑하기	-.459***	.017
	가계부 기록	-.391***	.081
	재산 관리	-.535***	.242***
합계	-.418***	.168*	
돌봄영역	손자녀 돌봄	-.555***	.073
	노인 및 기타 가족원 돌봄	-.572***	.147
	애완동물 돌봄	-.641***	.224†
합계	-.311***	.309***	
합계		-.654***	.142†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독립 변수와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간의 상관 관계

독립 변수와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의 상관 계수는 여성($r=.160, p<.05$)에게서만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여성은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뛰어나수록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사 노동 분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r=-.128, p<.1$)과 여성($r=-.321, p<.001$) 모두 부(-)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녀 모두 여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Lee and Shehan, 1989; Kluwer et al., 1996; Stevens et al., 2001)을 지지하며,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송혜림(2000), 채로(2004)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에게 가사 노동이 가중될 경우 부부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남성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부간 공유 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r=.476, p<.001$)과 여성($r=.408, p<.001$) 모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남녀 모두 배우자와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부부 관계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부부간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이기영 외(1995), 이정호(2007)의 연구를 지지한다.

<표 17> 독립 변수와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간의 상관 관계

	남성	여성
	<i>r</i>	<i>r</i>
가사 노동 수행 능력	.109	.160*
가사 노동 분담	-.128†	-.321***
부부간 공유 활동	.476***	.408***

† $p<.1$, * $p<.05$, *** $p<.001$

3) 독립 변수와 우울감 간의 상관 관계

독립 변수와 우울감 간의 상관 관계는 <표 18>과 같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의 상관 관계는 남성($r=-.147, p<.1$)에게서만 관련성을 보였으며,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이다.

가사 노동 분담과의 상관 관계는 여성($r=.221, p<.01$)에게서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가사 노동 수행 정도가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보고한 Kessler와 McLeod(1984), Lee와 Shehan(1989)의 연구를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 남성의 가사 노동 분담은 우울감과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뛰어나수록 수행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우울감이 낮아지는 결과로 보아 남성의 가사 참여는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남성 노인일수록 가사 노동을 수행해야 할 경우 우울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아내가 가사 노동을 수행하기를 원하기도 하며(김영혜, 2004),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가사 노동 자체가 여성에게 중요한 것만큼 남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사 노동이 여성의 우울감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남성은 원활한 부부 관계를 위해 일정 부분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간 공유 활동은 남성($r=-.415, p<.001$)과 여성($r=-.281, p<.001$) 모두 우울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관계 계수를 보면 부(-)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은퇴 후 배우자와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간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이선미와 김경신(2002)의 연구를 지지한다.

<표 18> 독립 변수와 우울감 간의 상관 관계

	남성	여성
	<i>r</i>	<i>r</i>
가사 노동 수행 능력	-.147*	-.059
가사 노동 분담	.029	.221**
부부간 공유 활동	-.415***	-.281***

* $p < .05$, ** $p < .01$, *** $p < .001$

4.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

1)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

남성과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척도인 교육 수준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교육 수준에서 중학교 졸업인 집단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인 집단이 1인 경우, 대학교 졸업인 집단이 1인 경우를 각각 부호화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의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모형에서는 VIF의 값이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Durbin-Watson은 1.765로 기준값인 2에 가깝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모형 1에는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을, 모형2에는 모형 1에 가사 노동 분담을 추가하였으나 통계적 수준 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3은 모형 2에 부부간 공유 활동을 추가한 것이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부부간 공유 활동은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23.5%

를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부부간 공유 활동($\beta=.488, p<.001$)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아내와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은퇴 후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모형 3에 통제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모형 4의 설명력은 30.3%로, 모형 3에 비하여 6.8% 정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더 설명하고 있다. 부부간 공유 활동, 성역할 태도, 주관적 건강 상태는 남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부간 공유 활동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남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부간 공유 활동($\beta=.480, p<.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 성역할 태도($\beta=-.141, p<.05$), 주관적 건강 상태($\beta=.125, p<.1$)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성은 은퇴 후 부부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 가사 노동 부담,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자녀 수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부간 공유 활동은 남성의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이는 부부간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의 선행 연구들(이기영 외, 1995; 김태현·전길양, 1997; 이정호, 2007; Miller, 1976; Synder, 1979)을 지지한다. 남성의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성역할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최규련, 1984; 조유리, 2000; 김태현·박주희, 2005)은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 관계를 높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 결과는 남성의 성역할 태도는 근대적일수록 부부 관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과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남성 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독립 변수들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N=176)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공선성 공차	통계량 VIF
	SE	β	$t(p)$	SE	β	$t(p)$	SE	β	$t(p)$	SE	β	$t(p)$		
(상수)	.210	-	13.424 (.001)	.621	-	5.487 (.001)	.573	-	3.967 (.001)	.852	-	1.581 (.116)	-	-
가사 노동 수행 능력	.004	.109	1.448 (.149)	.005	.044	.443 (.659)	.005	-.111	-1.224 (.223)	.005	-.085	-.926 (.356)	.500	2.001
가사 노동 분담				.114	-.100	-1.000 (.319)	.101	-.116	-1.317 (.190)	.104	-.095	-1.056 (.292)	.519	1.926
부부간 공유 활동							.074	.488***	6.990 (.001)	.075	.480***	6.796 (.001)	.851	1.175
연령										.010	.126	1.436 (.153)	.554	1.804
교육 고졸 이하										.139	.030	.278 (.781)	.365	2.737
수준 대졸 이상										.148	-.035	-.311 (.756)	.332	3.015
주관적 건강 상태										.052	.125†	1.730 (.085)	.817	1.224
가구 소득										.000	-.058	-.783 (.435)	.781	1.281
자녀 수										.053	.110	1.433 (.154)	.716	1.397
성역할 태도										.010	-.141*	-2.075 (.040)	.925	1.081
은퇴 기간										.001	-.036	-.412 (.681)	.553	1.809
R ²	.012			.018			.235			.304				
수정된 R ²	.006			.006			.222			.257				
F	2.098			1.549			17.604***			6.509***				

† $p < .1$, * $p < .05$, *** $p < .001$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VIF 값은 10 미만이며, Durbin-Watson은 1.947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모형 1을 살펴보면,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은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2.6% 설명하고 있으며, 가사 노동 수행 능력($\beta=.160, p<.05$)이 높을수록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가사 노동 분담을 추가한 것으로, 설명력은 14.6%이다. 모형 1에 비하여 12.0% 더 설명하고 있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beta=.210, p<.01$)과 가사 노동 분담($\beta=-.350, p<.001$)은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서 부부간 공유 활동을 추가한 것이다. 설명력은 22.9%로 모형 2에 비하여 8.3% 더 설명하고 있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의 영향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beta=.137, p<.05$), 가사 노동 분담($\beta=-.250, p<.001$), 부부간 공유 활동($\beta=.310, p<.001$)은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모형 3에서 통제 변수들을 추가한 것으로 설명력이 33.1%이다. 이는 모형 3에 비하여 10.2%를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통제 변수를 투입하였더니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가사 노동 분담, 부부간 공유 활동, 성역할 태도, 남편의 은퇴 기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은퇴 후 부부 관계에서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부간 공유 활동($\beta=.277, p<.001$), 가사 노동 분담($\beta=-.255, p<.001$), 성역할 태도($\beta=-.219, p<.001$), 남편의 은퇴 기간($\beta=.157, p<.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함께 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남편이 은퇴한 기간이 길수록 부부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여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간 공유 활동과 성역할 태도가 남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난 남성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남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주요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던 가사 노동 분담이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한 Lee와 Shehan(1989), Kluwer 외(1996), Stevens 외(2001)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여성 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독립 변수들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N=191)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공선성 공차	통계량 VIF
	SE	β	$t(p)$	SE	β	$t(p)$	SE	β	$t(p)$	SE	β	$t(p)$		
(상수)	.272	-	9.381 (.001)	.346	-	0.842 (.001)	.427	-	5.927 (.001)	.714	-	4.840 (.001)	-	-
가사 노동 수행 능력	.005	.160*	2.230 (.027)	.004	.210**	3.080 (.002)	.004	.137*	2.044 (.042)	.004	.091	1.388 (.167)	.850	1.177
가사 노동 분담				.074	-.350***	-5.146 (.001)	.074	-.250***	-3.642 (.001)	.071	-.255***	-3.906 (.001)	.861	1.162
부부간 공유 활동							.075	.310***	4.475 (.001)	.072	.277***	4.170 (.001)	.828	1.207
연령										.010	.001	.016 (.987)	.504	1.986
교육 고졸 이하										.115	.049	.549 (.584)	.459	2.177
수준 대졸 이상										.127	-.100	-1.098 (.273)	.441	2.268
주관적 건강 상태										.047	-.027	-.412 (.681)	.868	1.152
가구 소득										.000	.020	.279 (.781)	.699	1.430
자녀 수										.046	.070	.942 (.347)	.654	1.529
성역할 태도										.009	-.219***	-3.403 (.001)	.884	1.132
남편의 은퇴 기간										.001	.157†	1.955 (.052)	.565	1.769
R ²	.026			.146			.229			.345				
수정된 R ²	.020			.137			.216			.305				
F	4.972*			16.061***			18.467***			8.582***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

남성과 여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명목척도인 교육 수준과 은퇴 전 직업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은퇴 전 직업은 서비스직, 생산직, 기능직, 기타 등을 하나의 집단으로 그룹화하여 이를 기준으로, 고위관리직과 전문직이 1인 경우, 사무직이 1인 경우를 각각 부호화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의 우울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VIF 값이 10 미만이며, Durbin-Watson은 2.091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모형 1에는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을 투입한 것으로 남성의 우울감을 2.2% 설명하고 있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beta = -.147, p < .1$)은 우울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가사 노동 분담을 추가한 것으로 설명력은 3.0%이며, 모형 1에 비해 0.8% 더 설명하고 있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beta = -.224, p < .05$)의 영향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사 노동 분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 3은 가사 노동 수행 능력, 가사 노동 분담, 부부간 공유 활동을 17.9% 설명하고 있다. 모형 2에 비해 14.9% 더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부부간 공유 활동($\beta = -.405, p < .001$)이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부간 공유 활동을 통해 매개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모형 4는 모형 3에 통제 변수들을 추가한 것으로 설명력은 32.1%이며, 모형 3에 비해서 14.2% 더 설명하고 있다. 부부간 공유 활동, 연령, 주관적 건강 상태, 은퇴 전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등이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부간 공유 활동($\beta=-.348, p<.001$), 주관적 건강 상태($\beta=-.270, p<.001$), 은퇴 전에 사무직에 종사하였던 경우($\beta=-.149, p<.1$), 연령($\beta=-.118, p<.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아내와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은퇴 전에 사무직에 종사하였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 여전히 부부간 공유 활동은 남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우울감에 주요한 변수로 나타난 주관적 건강 상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원영희, 1995; 김병하·남철현, 1999; 김영혜, 2004; 권은비, 2010)을 지지한다. 남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연령은 본 연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보고한 이종범 외(1984)의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우울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여성의 우울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VIF 값이 10 미만이며, Durbin-Watson은 1.602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모형 1은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을 투입하였는데 통계적 수준 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은 여성의 우울감을 5.7% 설명하고 있으며, 가사 노동 분담($\beta=.234, p<.001$)이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 부부간 공유 활동을 추가한 것으로, 설명력은 10.1%이며, 모형 2에 비해서 4.4% 더 설명하고 있다. 가사 노동 분담($\beta=.160, p<.05$), 부부간 공유 활동($\beta=-.227, p<.01$)이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모형 3에 통제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설명력은 24.2%로 모형 3에 비해 14.1% 더 설명하고 있다. 가사 노동 분담, 부부간 공유 활동의 영향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주관적 건

강 상태, 가구 소득, 남편의 은퇴 전 직업이 고위관리직인 경우, 남편의 은퇴 전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등이 여성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beta=-.210, p<.01$), 부부간 공유 활동($\beta=-.179, p<.05$), 남편이 은퇴 전 직업이 고위관리직인 경우($\beta=-.145, p<.1$), 남편의 은퇴 전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beta=-.138, p<.1$), 주관적 건강 상태($\beta=-.135, p<.1$), 가사 노동 분담($\beta=.131, p<.0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과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남편이 은퇴 전에 판매및서비스직·생산직·기능직 보다는 고위관리직에 종사하였을수록, 남편이 은퇴 전에 판매및서비스직·생산직·기능직 보다는 전문직에 종사하였을 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낮은 경향을 보이며,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은 우울감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가구 소득이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밝힌 최규련(1984), 기승주(1988), 원영희(1995), 조유리(2000), 양지훈(2012)의 연구를 지지한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원영희, 1995; 김병하·남철현, 1999; 김영혜, 2004; 권은비, 2010)을 지지한다. 또한 부부간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여성의 우울감이 낮다고 보고한 이선미와 김경신(200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여성의 가사 노동 분담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여성일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보고한 김영혜(2004), Lee와 Shehan(198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종합해보면, 남성의 경우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우울감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간 공유 활동을 추가했더니 그 영향력은 사라졌다. 즉,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부간 공유 활동을 통해 매개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가사 노

동 수행 능력과 우울감 간에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사 노동 분담과 우울감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과 별개로 가사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또는 부부간에 분담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수록 개인의 우울감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는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분담 정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뛰어나수록 분담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남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수록 분담 정도가 높아지면 아내는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우울감이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부부간 공유 활동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남성의 우울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부간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우울감을 낮추기도 하지만,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부부간에 공유 활동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결국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우울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1> 남성 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독립 변수들이 우울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N=176)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공선성 공차	통계량 VIF
	SE	β	$t(p)$	SE	β	$t(p)$	SE	β	$t(p)$	SE	β	$t(p)$		
(상수)	1.148	-	6.273 (.001)	3.384	-	3.247 (.001)	3.256	-	4.959 (.001)	4.304	-	5.683 (.001)	-	-
가사 노동 수행 능력	.022	-.147†	-1.964 (.051)	.029	-.224*	-2.266 (.025)	.028	-.096	-1.015 (.311)	.026	-.074	-.832 (.407)	.518	1.929
가사 노동 분담				.624	-.118	-1.190 (.236)	.576	-.104	-1.140 (.256)	.554	-.073	-.829 (.408)	.534	1.872
부부간 공유 활동							.419	-.405***	-5.591 (.001)	.399	-.348***	-5.042 (.001)	.866	1.155
연령										.042	-.118†	-1.785 (.076)	.946	1.057
교육 수준										.778	-.135	-1.225 (.222)	.342	2.926
고졸 이하										.869	-.144	-1.188 (.237)	.282	3.550
대졸 이상										.272	-.270***	-3.965 (.001)	.887	1.128
주관적 건강 상태										.002	-.060	-.851 (.396)	.820	1.220
가구 소득										.644	-.074	-.943 (.347)	.672	1.488
은퇴 전직업										.601	-.149†	-1.910 (.058)	.675	1.481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R ²	.022			.030			.179			.321				
수정된 R ²	.016			.018			.165			.279				
F	3.858†			2.642†			12.488***			7.785***				

†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 22> 여성 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독립 변수들이 우울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N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SE	β	t(p)	SE	β	t(p)	SE	β	t(p)	SE	β	t(p)
(상수)	1.430	-	3.954 (.001)	1.893	-	.778 (.437)	2.402	-	2.545 (.012)	3.686	-	3.609 (.001)
가사 노동 수행 능력	.024	-.059	-.816 (.415)	.024	-.092	-1.291 (.198)	.024	-.039	-.539 (.590)	.024	-.018	-.248 (.805)
가사 노동 분담				.404	.234***	3.266 (.001)	.419	.160*	2.162 (.032)	.400	.131*	2.001 (.047)
부부간 공유 활동							.421	-.227**	-3.035 (.003)	.406	-.179*	-2.48 (.014)
연령										.043	-.118	-1.62 (.107)
교육 고졸 이하										.640	.041	.425 (.671)
수준 대졸 이상										.716	-.053	-.539 (.590)
주관적 건강 상태										.266	-.135†	-1.90 (.058)
가구 소득										.002	-.210**	-2.78 (.006)
은퇴 전 직업										.646	-.145†	-1.94 (.054)
은퇴 전 직업										.529	-.138†	-1.77 (.077)
R ²	.004			.057			.101			.242		
수정된 R ²	-.002			.047			.087			.209		
F	.667			5.683**			7.024***			7.272*		

† $p < .1$, * $p < .05$, ** $p < .01$, *** $p < .001$

3) 가사 참여도가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의 영향력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보다 자세하게 연구하기 위하여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대한 영역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영역별 가사 노동 분담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1) 영역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

영역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은 남녀 모두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울감에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의생활영역, 돌봄영역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의생활영역($\beta=.457, p<.001$), 돌봄영역($\beta=-.228, p<.0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영역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12.1%이다. 여성은 의생활영역($\beta=.302, p<.05$), 주생활영역($\beta=-.275, p<.01$)에서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10.9%이다. 영역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23>과 같다.

<표 23> 영역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남성 (n=135)					여성 (n=149)				
	SE	β	t (p)	공차 한계	VIF	SE	β	t (p)	공차 한계	VIF
(상수)	.256	-	11.317 (.001)	-	-	.327	-	8.108 (.001)	-	-
의생활영역	.031	.457***	3.336 (.001)	.364	2.749	.045	.302*	.023 (.045)	.279	3.580
식생활영역	.021	-.100	-.760 (.449)	.397	2.518	.024	.028	.197 (.844)	.316	3.163
주생활영역	.020	-.035	-.342 (.733)	.636	1.573	.025	-.275**	-2.870 (.005)	.679	1.473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	.033	-.052	-.387 (.700)	.383	2.612	.033	.086	.818 (.415)	.563	1.775
돌봄영역	.021	-.228*	-2.184 (.031)	.627	1.594	.017	.007	.082 (.935)	.889	1.124
R²										
수정된 R²										
F	3.536**					3.497**				

* $p < .05$, ** $p < .01$, *** $p < .001$

(2) 영역별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

영역별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중 주생활영역, 돌봄영역의 가사 노동 분담이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대적 영향력은 주생활영역($\beta = -.227, p < .05$), 돌봄영역($\beta = -.218,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주생활영역과 돌봄영역에서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17.6%이다. 영역별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24>와 같다.

<표 24> 영역별 가사 노동 분담이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N=142)

	SE	β	t(p)	공차한계	VIF
(상수)	.380	-	10.296(.001)	-	-
의생활영역	.081	-.097	-.842(.401)	.461	2.171
식생활영역	.101	.046	.452(.652)	.583	1.717
주생활영역	.074	-.227*	-2.263(.025)	.603	1.658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	.079	.066	.750(.455)	.787	1.271
돌봄영역	.063	-.218*	-2.198(.030)	.618	1.619
R²			.176		
수정된 R²			.145		
F			5.797***		

* $p < .05$, *** $p < .001$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총 367부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은퇴 후 가사 참여도와 부부간 공유 활동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차이는 어떠한지 파악하고,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사 참여도는 낮지만, 가사 노동을 잘 수행한다고 인식할수록 가사 노동 분담 정도가 높고, 가사 노동 수행정도는 남성의 우울감을 낮추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 포함되는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은 가사 노동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의 평균은 90점 만점에 50.2점, 여성은 58.8점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약 8.6점이 낮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주생활영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보다 수행 능력의 점수는 낮았지만,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정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5개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여, 가사 노동을 잘 수행하는 영역일수록 분담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주생활영역,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 돌봄영역에서만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분담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생활영역과 식생활영역에서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생활영역,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 돌봄영역에서의 수행 능력이 높

을수록 가사 노동의 분담 정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의생활영역과 식생활영역은 수행 능력과 별개로 어쩔 수 없이 여성이 수행해야하는 영역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간 가사 노동 분담에 있어서 의생활영역과 식생활영역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남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남성의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앞서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 노동 분담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가사 노동 분담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가사 노동을 잘 하는 것과는 별개로 수행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낮게 인식하고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편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분담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내는 부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우울감이 낮아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부부간 공유 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이로써 남성의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은퇴 후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지위나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은퇴남편증후군’ 과 같이 아내들의 스트레스 또한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았으나, 가사 노동 분담 정도는 남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 노동 분담 정도가 높을수록 남녀 모두 부부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여성은 가사 노동이 오랫동안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해왔지만, 은퇴 후에는 남편의 역할이 변화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사 노동 자체가 남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게

가중되는 가사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쳐 남녀 모두 부부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은퇴 후에 부부간 가사 노동에 있어서 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성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남성의 수행 능력은 가사 부담 정도를 증가시키며, 남성의 가사 참여는 시간의 제약과 상관없이 남성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아내의 긍정적인 정서를 위해서도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송혜림(2000)과 채로(2004)의 연구에서 남성의 가사 참여가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제약이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의 가사 참여는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의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교적 시간의 제약이 적고 이용 가능한 시간 자원이 증가하는 은퇴 후에도 남성의 가사 참여는 남녀 모두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사 노동은 대체로 여성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사 노동은 남성보다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밝혀졌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생활영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여성의 가사 노동 수행비율이 높게 나타나 가사역할을 공유하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수행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집안 수리'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사 노동의 책임은 아내들에게 있음을 보고한 이미숙(1995), 김태현과 전길양(1997), 김영혜(2004), 장은정(2006), Dorfman and Heckert(1988)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남성은 '집안 수리' 항목에서, 여성은 '밥짓기'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집안 수리' 항목과 '밥짓

기', 반찬 만들기 등의 항목에서 부부역할의 성별분리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이미숙(1995)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사 노동 분담은 남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련성을 보였으나 우울감과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다르게, 여성이 지각한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은 가사 노동 분담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즉, 여성은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낮게 지각하였으며 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서 모두 가사 노동 분담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즉, 가사 노동 분담은 여성의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을 설명하는데 있어 강력한 주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사 노동 분담이 여성의 만족감과 우울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Lee와 Shehan(1989), Suitor(1991), Kluwer 외(1996), Stevens 외(200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가사 노동 분담 정도가 높을수록 남성 노인의 우울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 가사 노동 분담 여부가 우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김영혜(2004)의 연구, 가사 노동 분담 정도가 결혼 만족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김태현과 전길양(1997),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는 상대적 자원 가설에 기초하여 은퇴 후 남성의 시간 자원 확보로 인해 가사 노동 분담이 은퇴 전에 비해 일정 부분 증가할 것을 예상하였지만 주생활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 즉, 전통적으로 여성의 담당으로 여겨지는 가사 노동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주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뛰어들수록 분담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일치하였다.

셋째, 부부간 공유 활동은 남녀 모두에게서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밝혀졌다. 부부간 공유 활동과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그리고 부부간 공유 활동과 우울감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배우자와 공유 활동을 자주 할수록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변수들로는 남성의 경우 부부간 공유 활동, 성역할 태도, 주관적 건강 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부부간 공유 활동, 가사 노동 분담, 성역할 태도, 남편의 은퇴 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변수들로는 남성의 경우 부부간 공유 활동, 주관적 건강 상태, 은퇴 전 직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가구 소득, 부부간 공유 활동, 남편의 은퇴 전 직업, 주관적 건강 상태, 가사 노동 분담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간 공유 활동은 독립 변수인 가사 노동 수행 능력, 가사 노동 분담 뿐만 아니라 통제 변수들을 투입했는데 그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부부간 공유 활동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간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부부의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이기영 외(1995), 김태현과 전길양(1997), 이정호(200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부부간 여가공유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보고한 이선미와 김정신(200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 외에도 남성과 여성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 또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은퇴 후 노년기 우울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보고한 원영희(1995), 김병하와 남철현(1999), 김영혜(2004), 권은비(2010)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넷째, 은퇴 후 부부 관계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난 성역할 태도는 남녀 모두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성역할 태도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근대적일수록 부부의 만족감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조유리, 2000; 김태현·박주희, 2005; 조지은 외, 2007).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남녀 모두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밝혀진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먼저, 이들의 성역할 태도의 평균 점수는 40점 만점에 남성 25.5점, 여성 26.2점이다. 23점 이하를 전통적 성역할 태도, 24점 이상을 근대적 성역할 태도라고 분류(김영혜, 2004)할 때에 남녀 모두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전통적일수록 부부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남녀 조사 대상자는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경험한 중·노년기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가치관과 실제 부부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에서 살아왔지만 현대 사회에서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이 요구되면서 기존의 가치관은 어느 정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부부 관계, 특히 가사 노동 분담에 있어서는 남녀의 역할이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 여전히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이라면 가사 노동에 있어서 여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앞서 여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은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그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왔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나 동시에 여성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전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주도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 즉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는 짐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진 영역들, 여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진 영역들을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감이 낮지 않을 수 있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의해서 여성은 가사 노동에 불만이 있어도 자신의 몫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의 갈등은 표출되지 않은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가사 노동에 있어 실제로 여성들의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며,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가시화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한편 영역별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영역별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주생활영역에 있어서 가사 노동을 잘 수행한다고 인지할수록, 여성의 가사 노동 분담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안 수리' 등을 포함하는 주생활영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여성은 주생활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자신이 잘 해야하거나 수행해야 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남편이 해야될 일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생활영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 노동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남성이 담당해왔던 영역에서도 여성의 부담이 높아진다면 이는 곧 여성이 지각하는 부부 관계에서의 만족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영역별 가사 노동 분담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로써, 여성은 주생활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돌봄영역에서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부 관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초기부터 수행하게 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의생활·식생활·구매 및 가정경영 등의 영역에서는 오랫동안 해왔던 일로 여겼으나 이와는 다르게 손자녀나 노부모를 돌보는 것과 같이 비교적 중·노년기에 수행하게 되는 돌봄영역에서는 여성에게 가중되는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부부 관계를 낮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남편이 은퇴하기 전에는 가사 노동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몫으로 여겨왔지만 남편의 은퇴 후에는 돌봄영역과 같이 특정한 영역에서는 남편이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즉, 의생활·식생활·구매 및 가정경영 등의 영역과 같이 비교적 오랫동안 수행해온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노년기에 수행하게 되는 돌봄영역은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은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가사 노동 수행정도가 높아지고,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은퇴기 남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시·군·구 자치기관, 평생 교육원, 비영리 민간단체, 금융 기관, 사기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대체로 자산 관리 등 경제 교육 프로그램, 재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노후 생활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부부 관계와 같은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이 삶의 질이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은퇴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노후 설계 교육의 일환으로 은퇴기에 있는 직장 남성들과 은퇴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리 교육 프로그램, 돌봄 지원 교육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요리를 만들거나 육아 방법을 배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양 교육 이라든지 조부모 교육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차별화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가정에서도 보다 전문성있는 가사

노동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여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돌봄영역에서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여성은 가사 노동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돌봄영역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가사 노동의 영역 중 결혼 초기부터 수행되는 의생활영역, 식생활영역 등 다른 영역에 비해 손자녀나 노부모에 대한 돌봄은 비교적 중·노년기에 수행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수행해왔던 영역과는 다르게 더욱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돌봄영역은 남녀 모두 선호하는 영역이 아니며 비용적인 측면 또한 개인과 가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국가적·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는 돌봄과 관련된 사회 서비스는 일정 부분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정내 돌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완충시키면서 남성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남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 그 중에서도 돌봄 문제와 같은 영역은 여성의 요구와 선호와 그리고 세대와 상관없이 여성이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성도 요구와 선호, 세대와 상관없이 보다 나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사 노동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남성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도록 가사 참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요리 교육 프로그램, 돌봄 지원 교육은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남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중·노년기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음식을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를 가는 방법 등 보육적인 부분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흥미로울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가사 노동을 수행해온 중·노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손자녀의 놀이나 정서 발달 등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더욱 흥미로울 수 있다. 덧붙여 이러한 질적인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있는 손자녀 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현 자녀 세대의 수요와 기대에도 부응하여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은퇴 후 남성과 여성의 가사 참여도와 부부간 공유 활동이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들을 남녀 모두의 측면에서 밝혔다는 점과, 남성의 가사 노동 수행이 남성의 우울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남녀간의 지각차이를 밝혔으나, 조사 대상자 선정과 자료수집 과정의 제한점으로, 한 가정의 부부를 한 단위로 연구하지 못하고 남성과 여성 각각 자료를 수집하여 한 가정의 부부간의 지각 차이를 알아보는 데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를 한 단위로 연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가사 참여에 있어 가사 노동의 질적인 측면인 가사 노동 수행 능력과 양적인 측면인 가사 노동 분담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외에 가사 참여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등의 다양한 변수를 후속 연구에서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앞으로 길어진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있어 중요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을 밝혔으나, 은퇴 전에 상황을 분석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 은퇴 전과 은퇴 후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부부 관계는 양적인 측면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은퇴 후 부부 관계와 우울감에 관한 더욱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강지숙(2008). 노인의 은퇴 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8(3), 477-496.
- 권은비(2010). 은퇴 관련 변수와 부부 관계의 질이 은퇴한 남성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 노동 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 가족 생활 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백석(1996).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 35(2), 298-307.
- 기승주(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박미금·송말희(2005). 남성 퇴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3(2), 143-158.
- 김병하·남철현(1999). 유배우 노인의 우울 정도와 관련 요인 분석 연구. 한국노년학, 19(2), 173-192.
- 김신덕(1985). 노년사회학. 경문사.
- 김영혜(2004). 유배우 노인의 성역할 태도·가사 노동 분담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외숙(1981). 도시 주부의 가사 노동에 대한 태도(I). 대한가정학회, 19(4), 55-64.
-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 시장 충격,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 김인숙(2006). 중년기 직업 종사자의 은퇴 후를 대비한 재정적 준비: 공적연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7(3), 67-87.

- 김미혜·김정원·백명희·송혜미(2007).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 노인의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8, 383-461.
- 김태현·전길양(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 간 지지와 역할 공유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167-182.
- 김태현(1998). 노년학. 교문사.
- 김태현·박주희(2005).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 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 10(3), 79-106.
- 김정석(2010). 준고령층 부부의 식사 관련 행위. 한국인구학, 33(3), 123-142.
- 김효정(2007). 남성 노인의 은퇴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결혼 만족도의 매개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숙재·채옥희(1992). 가사 노동. 신광출판사.
- 문숙재·허경옥·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 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35(2), 345-358.
- 박경숙(2003a).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 시장 이탈 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 박경숙(2003b). 중장년기 종사상 지위와 은퇴 과정의 다양성. 한국노동경제학, 24(1), 177-205.
- 보건복지부(2008).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 손승영(1994). 한국 가족의 부부 관계: 8장, 노부부의 가족 구성 및 가족 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송진영(2011). 노인복지론. 서울: 나눔의 집.
- 송혜림(2000).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 실태. 생활과학논문집, 2(1), 103-115.

- 신소영(1996). 계층별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자원 이론, 시간
가용설 가설, 성 역할 가설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신화용(1996). 남편의 은퇴와 부부 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
과학연구, 덕성여자대학교, 4, 117-131.
- 신화용·조병은(1999). 은퇴한 남편을 둔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 만
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5.
- 안지선(2012). 중년기 은퇴로의 전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족 관
계 만족도의 매개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지훈(2012). 가족 공유 활동이 부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 오선주(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 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 40(10), 201-215.
- 원영희(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유계숙(2010).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 생
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70.
- 유애리(1998). 신세대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 인식 및 가사 노동 수행과 가
정 생활 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숙·두경자(1999). 취업 주부와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 실태 및 영향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3(1), 123-134.
- 윤현숙·이미진(2006).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노인의 성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4),
197-217.

- 은기수(2009). 한국 기혼 부부의 가사 노동 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이기숙(1984). 가족 주기에 따른 부부 적응의 변화. 신라대학교 논문집, 17, 601-617.
- 이기숙(2003). 가족 의례: 한국인의 죽음 의례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 175-208.
- 이기영 · 김외숙 · 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 여가 시간과 결혼 만족도. 대한가정학회, 33(3), 113-126.
- 이기영 · 김외숙 · 윤미림(1998). 한일 양국의 식생활 관련 가사 노동의 수행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2), 105-118.
- 이기영 · 이연숙 · 김외숙 · 조희금 · 이또우세츠 · 아마노히로코(2001). 한국과 일본의 생활 시간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기영 · 이현아 · 김외숙 · 이연숙 · 조희금 · 이승미 · 김주희 · 한영선(2011). 가족 공유 가사 노동 시간 및 영향 요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5(2), 103-128.
- 이미숙(1995). 맞벌이 부부의 가사 역할 공유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15(1), 41-69.
-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 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 양육 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미 · 김정신(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 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 변수 연구. 한국노년학, 22(1), 139-157.
- 이순미 · 김혜경(2008). 부부간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한 공정성 인지의 영향 요인 연구: 기혼 취업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1), 1-25.
-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충북가정학회, 3(1), 23-31.

- 이정아(1997). 부산시 기혼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호(2007). 중년기 여가 생활 형태가 가족 기능과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범 · 서혜수 · 정성덕(1984). 노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4(1), 44-51.
- 임소진(2011). 우리나라 중년기 성인들의 인지된 삶의 질 :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통합적 예측모델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인숙 · 한신원 · 박지연(2012). 유급 노동과 무급 가사 노동의 질이 성인 남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6(2), 176-202.
- 장상희(1991). 성역할 사회화와 남녀 사원 간의 업무관계 만족도.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3(1), 1-28.
- 장은정(2006). 부부간 인식차이에 따른 은퇴 후 가족 관계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순돌 · 김고은 · 김정원(2011). 은퇴한 배우자를 둔 중고령 여성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1), 137-155.
-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2000). 부부 갈등 및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 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지은 · 김양희 · 박정윤(2007). 기혼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부모기 전이 부부를 대상으로. 생활과학논집, 25, 103-117.
- 지연경 · 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 29(2), 217-240.

- 채로(2004). 맞벌이 부부의 가사 노동 시간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옥희(2004). 가사 노동과 여성복지. 도서출판 경춘사.
-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22(2), 91-102.
- 최동숙(1991). 가정 자원 관리 체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성재(1989). 퇴직 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 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1), 47-65.
- 최진이(2010). 부부여가활동에 대한 개인 선호가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지지와 성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통계청(2012). 201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 통계청(2013). 2012 인구동향조사(혼인·이혼통계).
- 한국노동연구원(2007).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 기본조사베타(Beta) 버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한연순(2011). 기혼 남녀의 가사 노동 분담 및 공평도에 관한 주관적 인지도.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미화(2004). 중년기 기혼 남녀의 결혼 생활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보선(1994). 부부간 의사 소통 효율성 및 의사 결정 유형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 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수섭(1999). 노인의 우울과 관련되는 심리,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tchley, R. C.(1982). Retirement as a social institu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8, 263-287.
- Atchley, R. C.(2000).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9th ed). Beaumont, CA: Wadsworth.
- Bromley, D. B.(1990). *Behavioral gerontology*, chichester: *Wiley and sons*.
- Brubaker, T. H.(1985). Responsibility for household tasks: A look at golden anniversary couples aged 75 years and older. In W. A. Peterson and J. Quadagno(Eds.), *Social bonds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 Sage.
- Brubaker, T. H., and Ade-Ridder, L.(1986). Husband's responsibility for household tasks in older marriages: Does living situation make a difference? In R. A. Lewis and R. E. Salt(Eds.), *Men in families*, Beverly Hills, CA: Sage.
- Burke, R. J., and Weir, T.(1976). Relationship of wives' employment status to husband, wife and pai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279-287.
- Butterworth, P., Gill, S. C., Rodgers, B., Anstey, K. J., Villamil, E., and Melzer, D.(2006). Retirement and mental health: Analysis of the Australian national survey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2(2006), 1179-1191.
- Charles, C. J.(1984). The Retired Husband Syndrome. *Th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 Coverman, S.(1989). Women's work is never done: The division of domestic labor. In J. Freeman(Ed.), *Women: A feminist perspective*(356-367). Palo Alto, CA: Mayfield.
- Crawford, M. P.(1971). Retirement and disengagement. *Human Relations*, 24, 255-278.
- Dorfman, L. T.(1992). Couples in retirement: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Szinovacz, M., Ekerdt D. J. and Vinick, B. H.(Eds), *Families and retirement*, 145-158.
- Dorfman, L. T., and Heckert, D. A.(1988). Egalitarianism in retired rural couples: Household tasks, decision-making and leisure activities. *Family Relations*, 37. 73-78.
- Edwards, J. n., and Klemmack, D. L.(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 497-502.
- Glass, J., and Tetsushi Fujimoto.(1994). domestic labor, paid work, and depression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2), 179-191.
- Higginbottom, S. F., Barling, J. and Kelloway, E. K.(1993). Linking retirement experi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a mediational model. *Psychology and Aging*, 8(4), 508-516.
- Kalish, R. Q.(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Cole Publishing Co. Change in the housewife role after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20, 84-89.
- Keating, N., and Cole P.(1980). What do I do with him 24hours a day? Changes in the housewife role after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20, 84-89.

- Kessler, R. C., and Jane McLeod.(1984). Sex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undesirable life ev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5), 620-631.
- Kluwer, E. S., Hessink, J. A., and Evert Van de Vliert.(1996). Marital conflict about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paid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58-969.
- Lee, G. R., and Shehan, C. L.(1989).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 226-230.
- Lewis, R. A., and Spanier, G. M.(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Hill, F. I. Nye: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2) edited by. London: Free Press.
- Liang, J.(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7, 100-108.
- Markides, K. S., and Martin, M.(1979).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4, 86-93.
- Medley, M. 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4.
- Miller, B. C.(1976). A Multivariate development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643-657.
- Orthner, D. K.(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7(1), 91-102.

- Osmond, M. W., and R. Y. Martin.(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d Family*, 37, 744-758.
- Patterson, G. R., Wills, T. A., and Weiss, R.(1974). A behavior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02-811.
- Pina, D. L., and Bengtson, V. L.(1993).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wife's happiness: Ideology, employment, and perceptions of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901-912.
- Sheikh, J. I., and Yesavage, J.A.(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In: Brink, T. L., ed. *Clinical Gerontology: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The Harwoth Press*, 165-173.
- Shelton, B. A., and John, D.(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299-322.
- Steidle, R. E., and Bratton, E. C.(1968). *Work in the Home*. *John Wiley and Sons, Inc.*
- Stevens, D., G. Kiger., and P. J. Riley.(2001). Working hard and hardly working: Domestic labor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514-526.
- Suitor, J. J.(1991). Marital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n household labor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221-230.

- Synder, D. K.(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Tuohy, A., Knussen, C., and Wrennall, M. J.(2005). Effects of age on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a sample of retired police officers. *Psychology and Aging*, 20(2), 202-210.
- Vinick, B. H., and Ekerdt, D. J.(1991). Retirement: What happens to husband-wife relationships?.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4(1), 23-40.
- Wheeler, C. L., and Arvey, R. P.(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10-20.

ABSTRACT

A Study on Impacts on Qualitative Changes of Marit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the Participation to Domestic Labor and the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after Husband's Retirement

Kim, Soo jin

Dep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ing the impacts on qualitative changes of marit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participation to domestic labor and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in the retired men and the women with a retired husband, especially, centering around the perception difference of men and women. To investigate this, the findings of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the main technique.

Seoul and Gyeonggi and Jeonbuk live in an area, and now a retired men or women with a retired husband, living with spouse, a survey of 367 people was conducted. The overall tren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was investigated, this targets, about qualitative changes of marital relationship, depression, participation to domestic labor and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And the relative influence between variables that influence qualitative changes of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were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bout qualitative changes in the marital relationship, depression and independent variables between men and women on the overall trends were examined. Looking at the quality of the marital relationship changes, 3.1 points for both men and women and found that generally recognized as positive. Depression score of 15 out of a total of 5.0 points on average men, women with an average 4.5 point, men more than women with higher depression scores. Ability to perform domestic labor by gender in average 50.2 points, respectively, to 58.8 points in all areas of women's domestic labor performance scores were higher than those for men. *t*-test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A result of examining the actual state of division of domestic labor, in the other four areas, excluding living area, similarly, a couple or a large burden of domestic labor that women were investigated. The total average of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median of 3.2 points 3 points was found to be close to the middle.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qualitative changes of marit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were analyzed respectively. Analyzed between ability to perform of domestic labor and division of domestic labor, men five were highly correlated in all areas. The living area, buying and home management area, care was relevant only in the area for women.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variable changes when qualitative changes of marital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men were division of domestic labor,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related.

And women were ability to perform of domestic labor, division of domestic labor, and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related.

Depression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between men and women, men were ability to perform of domestic labor and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related. And women were division of domestic labor and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related.

Third, Qualitative changes of marit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affects the relative influence of factors were analyzed. Qualitative changes of the marital relationship by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factors affecting, men were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gender role attitude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in order. And women were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division of domestic labor, and gender role attitudes in order. Looking at affects the relative influence of factors depression on you, men were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perceived health status, before retirement jobs, in order of age, respectively. And women were household income,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the husband's before retirement job, subjective health status, such as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order.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on changes in the quality of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after retirement reveale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Division of domestic labor, on the quality of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of in women than in men, revealed to be a major factor affecting. In addition, men's ability to perform domestic labor for reducing depression in men was found to be effective.

<부록 1>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남성)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소득	자녀 수	성역할 태도	가사 노동 수행 능력	가사 노동 분담	부부간 공유 활동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1									
연령	.072	1								
교육 수준	-.015	-.019	1							
주관적 건강 상태	.132†	-.188*	.091	1						
가구 소득	-.073	-.115	.301***	.177*	1					
자녀 수	.134†	.388**	-.201**	-.309**	-.207**	1				
성역할 태도	-.194*	-.021	.016	.015	.200**	-.029	1			
가사 노동 수행 능력	.109	-.006	.200**	-.065	-.018	.073	.027	1		
가사 노동 분담	-.128†	-.011	-.094	.079	.193*	.005	.075	-.654**	1	
부부간 공유 활동	.476***	-.126†	.126†	.132†	.111	.025	-.064	.296***	-.174*	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2>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와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여성)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소득	자녀 수	성역할 태도	가사 노동 수행 능력	가사 노동 분담	부부간 공유 활동
부부 관계의 질적 변화	1									
연령	.178*	1								
교육 수준	-.193**	-.286**	1							
주관적 건강 상태	.015	-.110	.165*	1						
가구 소득	-.138†	-.305**	.429**	-.170*	1					
자녀 수	.185*	.522**	-.311*	-.120†	-.379**	1				
성역할 태도	-.309***	-.027	.153*	.016	.261***	-.065	1			
가사 노동 수행 능력	.160*	.158**	-.164*	.142†	-.132†	.103	-.116	1		
가사 노동 분담	-.321***	-.008	-.081	.096	-.069	-.028	.012	.142†	1	
부부간 공유 활동	.408***	.074	.011	-.137†	-.011	.053	-.148*	.190**	-.291**	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3> 우울감과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남성)

	우울감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소득	은퇴 전 직업	가사 노동 수행 능력	가사 노동 분담	부부간 공유 활동
우울감	1								
연령	-.006	1							
교육 수준	-.241** *	-.019	1						
주관적 건강 상태	-.344** *	-.188*	.091	1					
가구 소득	-.193*	-.115	.301***	.177*	1				
은퇴 전 직업	.225**	-.006	-.518***	-.054	-.219**	1			
가사 노동 수행 능력	-.147†	-.006	.200**	-.065	-.018	-.231**	1		
가사 노동 분담	.029	-.011	-.094	.079	.193*	.187*	-.654***	1	
부부간 공유 활동	-.415** *	-.126†	.126†	.132†	.111	-.108	.296***	-.174*	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4> 우울감과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여성)

	우울감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소득	은퇴 전 직업	가사 노동 수행 능력	가사 노동 분담	부부간 공유 활동
우울감	1								
연령	-.056	1							
교육 수준	-.190**	-.286** *	1						
주관적 건강 상태	-.227**	-.110	.165*	1					
가구 소득	-.248** *	-.305** *	.429***	.170*	1				
은퇴 전 직업	.299***	.039	-.201**	.162*	-.168*	1			
가사 노동 수행 능력	-.059	.158*	-.164*	.142†	-.132†	-.127†	1		
가사 노동 분담	.221**	-.008	-.081	-.096	-.069	-.001	.142†	1	
부부간 공유 활동	-.281** *	.074	.011	.137†	-.011	-.160*	.190**	-.291***	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ID				-	A
----	--	--	--	---	---

은퇴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은퇴한 남성들과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 부부 관계와 가정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학술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학문적 연구를 위한 통계적 분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

○ 연구자: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김수진

사전 질문

1. 귀하는 은퇴를 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설문지 중단

은퇴란 기존에 하시던 생애 주된 일을 공식적으로 그만 두시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계시거나,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 경우를 뜻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은 정년 퇴직, 명예 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두신 경우이며, 자영업에 종사하였던 분은 하시던 일을 그만 두신 경우입니다. 은퇴 후 공공 근로, 경비,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시는 경우도 은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귀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설문지 중단

❖ 다음은 **남성과 여성이 말아서 해야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집이나 차를 구입하는 일과 같은 중요한 가족의 문제는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				
아내가 직업이 있어도 가족부양은 남편의 책임이다				
비록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정살림은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여자의 최고 미덕은 남편을 잘 내조하고 집안 살림을 잘 하는 것이다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아내는 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직장에서 같은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남자가 책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여자보다 남자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				
남성은 여성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 다음은 **귀하가 아내와 함께 하는 활동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매우 자주 한다	자주 한다	드물게 한다	거의 자주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영화감상, 여행 등을 함께 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 가족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한다					
생일, 입학, 결혼기념일 등 소규모 가족모임에 함께 한다					
친목이나 동호회 등에 함께 참여한다					
종교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전화,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다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 받는다					
함께 식사를 한다					
TV를 함께 시청한다					
대화를 나눈다					

❖ 다음은 귀하께서 가사 노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실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밥짓기						
반찬 만들기						
간식 만들기						
상 차리기						
설거지						
빨래하기 (세탁기 사용 포함)						
세탁물 널기						
다림질						
집안 가꾸기(정원 손질, 화초 가꾸기)						
집안 청소 및 물품 정리						
집안 수리 (전구 교체, 못 박기 등)						
쓰레기 버리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장보기						
가계부 기록						
재산 관리 (은행 및 관공서 업무)						
손자녀 돌봄(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노인 및 기타 가족원 돌봄						
애완동물 돌봄 (먹이기, 씻기기 등)						

❖ 다음은 가정에서 주로 누가 가사일을 하시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남편이 거의 다 한다	남편이 많이 하는 편이다	부부가 비슷하게 한다	아내가 많이 하는 편이다	아내가 거의 다 한다	해당사항 없음
밥짓기						
반찬 만들기						
간식 만들기						
상 차리기						
설거지						
빨래하기 (세탁기 사용 포함)						
세탁물 널기						
다림질						
집안 가꾸기(정원 손질, 화초 가꾸기)						
집안 청 및 물품 정리						
집안 수리 (전구 교체, 못 박기 등)						
쓰레기 버리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장보기						
가계부 기록						
재산 관리 (은행·관공서 업무)						
손자녀 돌봄(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노인 및 기타 가족원 돌봄						
애완동물 돌봄 (먹이기, 씻기기 등)						

❖ 다음은 **부부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은퇴 후 의지할 사람은 아내 밖에 없는 것 같다					
은퇴 후 아내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은퇴 후 아내는 잔소리를 더 많이 한다					
은퇴 후 우리 부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은퇴 후 아내와 대화가 더 잘 통하는 것 같다					
은퇴 후 아내는 나에게 전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은퇴 후 우리 부부는 더욱 평등한 관계인 것 같다					

❖ 다음은 **귀하께서 현재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그렇다	아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예전에 좋아했던 일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		
사는게 허전하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진다		
대체로 기분이 좋은 편이다		
앞날에 대해 걱정될 때가 많다		
대체로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고 한다		
나의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한다		
가치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6>

아내용

ID				-	B
----	--	--	--	---	---

은퇴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은퇴한 남성들과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 부부 관계와 가정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학술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학문적 연구를 위한 통계적 분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

○ 연구자: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김수진

사전 질문

1. 귀하의 남편은 은퇴를 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설문지 중단

은퇴란 기존에 하시던 생애 주된 일을 공식적으로 그만 두시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계시거나,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 경우를 뜻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은 정년 퇴직, 명예 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두신 경우이며, 자영업에 종사하였던 분은 하시던 일을 그만 두신 경우입니다. 은퇴 후 공공 근로, 경비,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시는 경우도 은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귀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설문지 중단

❖ 다음은 **남성과 여성이 말아서 해야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집이나 차를 구입하는 일과 같은 중요한 가족의 문제는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				
아내가 직업이 있어도 가족부양은 남편의 책임이다				
비록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정살림은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여자의 최고 미덕은 남편을 잘 내조하고 집안 살림을 잘 하는 것이다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아내는 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직장에서 같은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남자가 책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여자보다 남자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				
남성은 여성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 다음은 **귀하가 남편과 함께 하는 활동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매우 자주 한다	자주 한다	드물게 한다	거의 자주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영화감상, 여행 등을 함께 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 가족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한다					
생일, 입학, 결혼기념일 등 소규모 가족모임에 함께 한다					
친목이나 동호회 등에 함께 참여한다					
종교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전화,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다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 받는다					
함께 식사를 한다					
TV를 함께 시청한다					
대화를 나눈다					

❖ 다음은 귀하께서 가사 노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실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밥짓기						
반찬 만들기						
간식 만들기						
상 차리기						
설거지						
빨래하기 (세탁기 사용 포함)						
세탁물 널기						
다림질						
집안 가꾸기(정원 손질, 화초 가꾸기)						
집안 청소 및 물품정리						
집안 수리 (전구 교체, 못 박기 등)						
쓰레기 버리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장보기						
가계부 기록						
재산 관리 (은행 및 관공서 업무)						
손자녀 돌봄(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노인 및 기타 가족원 돌봄						
애완동물 돌봄 (먹이기, 씻기기 등)						

❖ 다음은 가정에서 주로 누가 가사일을 하시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남편이 거의 다 한다	남편이 많이 하는 편이다	부부가 비슷하게 한다	아내가 많이 하는 편이다	아내가 거의 다 한다	해당사항 없음
밥짓기						
반찬 만들기						
간식 만들기						
상 차리기						
설거지						
빨래하기 (세탁기 사용 포함)						
세탁물 널기						
다림질						
집안 가꾸기(정원 손질, 화초 가꾸기)						
집안 청소 및 물품정리						
집안 수리(전구 교체, 못 박기 등)						
쓰레기 버리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장보기						
가계부 기록						
재산 관리 (은행·관공서 업무)						
손자녀 돌봄(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노인 및 기타 가족원 돌봄						
애완동물 돌봄 (먹이기, 씻기기 등)						

❖ 다음은 **부부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은퇴 후 의지할 사람은 남편 밖에 없는 것 같다					
은퇴 후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은퇴 후 남편은 잔소리를 더 많이 한다					
은퇴 후 우리 부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은퇴 후 남편과 대화가 더 잘 통하는 것 같다					
은퇴 후 남편은 나에게 전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은퇴 후 우리 부부는 더욱 평등한 관계인 것 같다					

❖ 다음은 **귀하께서 현재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그렇다	아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예전에 좋아했던 일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		
사는게 허전하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진다		
대체로 기분이 좋은 편이다		
앞날에 대해 걱정될 때가 많다		
대체로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고 한다		
나의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한다		
가치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